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와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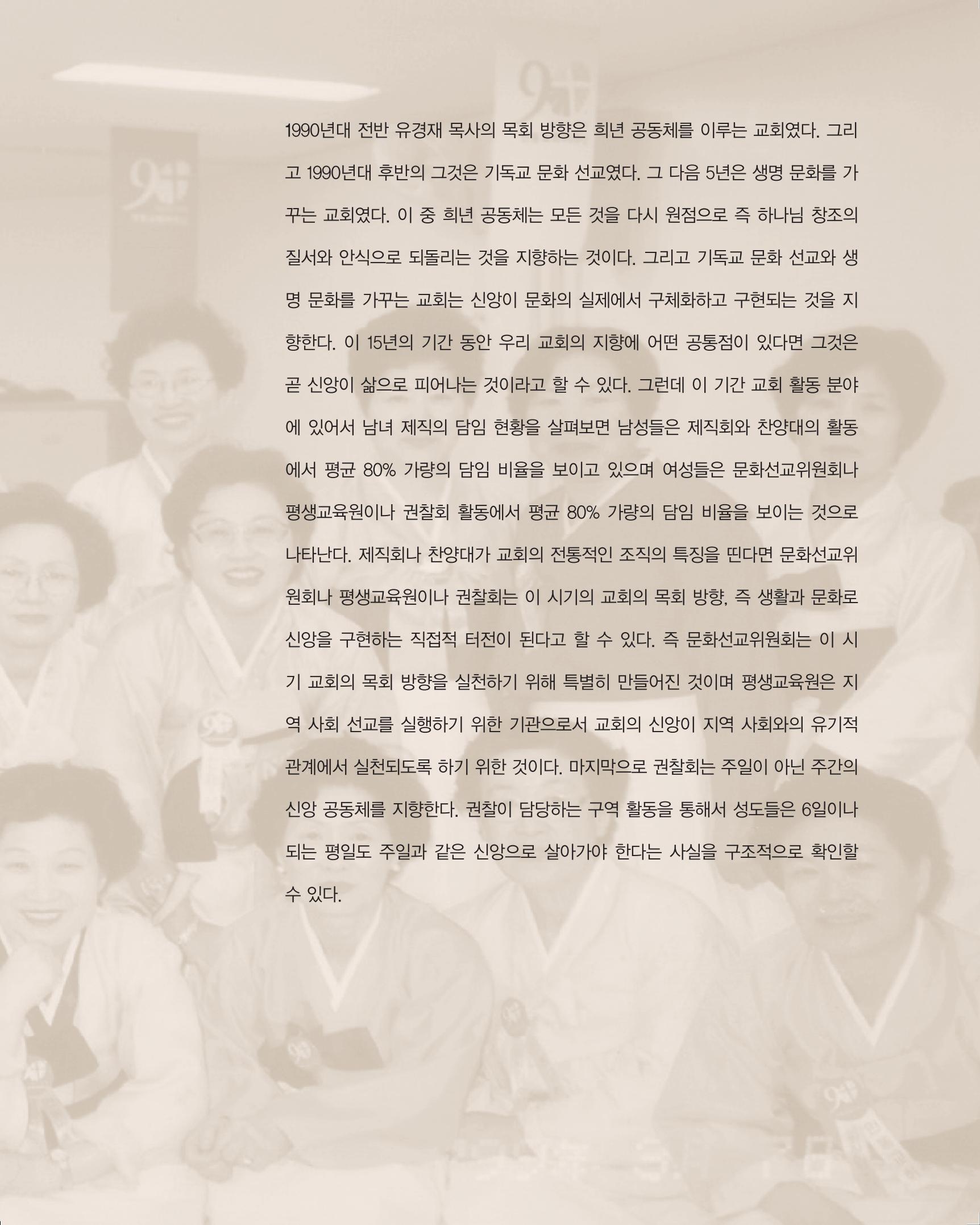
– 전영택, 1967.

5.

기독교문화를 꽂 피워 낸
안동의 여성들

(1991–2005)





1990년대 전반 유경재 목사의 목회 방향은 희년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였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의 그것은 기독교 문화 선교였다. 그 다음 5년은 생명 문화를 가꾸는 교회였다. 이 중 희년 공동체는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즉 하나님 창조의 질서와 안식으로 되돌리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 선교와 생명 문화를 가꾸는 교회는 신앙이 문화의 실제에서 구체화하고 구현되는 것을 지향한다. 이 15년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의 지향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곧 신앙이 삶으로 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 교회 활동 분야에 있어서 남녀 제직의 담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들은 제직회와 찬양대의 활동에서 평균 80% 가량의 담임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들은 문화선교위원회나 평생교육원이나 권찰회 활동에서 평균 80% 가량의 담임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직회나 찬양대가 교회의 전통적인 조직의 특징을 띤다면 문화선교위원회나 평생교육원이나 권찰회는 이 시기의 교회의 목회 방향, 즉 생활과 문화로 신앙을 구현하는 직접적 터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선교위원회는 이 시기 교회의 목회 방향을 실천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며 평생교육원은 지역 사회 선교를 실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교회의 신앙이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에서 실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찰회는 주일이 아닌 주간의 신앙 공동체를 지향한다. 권찰이 담당하는 구역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은 6일이나 되는 평일도 주일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구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1 여전도회 연표 5: 기독교 문화를 꽂 피운 안동의 여성들 (1991–2005)

¶ 기독교 문화를 꽂 피운 안동의 여성들 (1991–2005)

¶ 희년 공동체로서의 교회 (1991–1995)

담임목사	유경재	남성 부교역자			정 우 안광덕 황홍렬		여성 부교역자	김경남 김장세
시무장로	이효종 이 본 박희욱 민대홍 이상규 김충기 민석홍 송재욱 이정섭 홍영표 유승재 이강룡				여전도회 회장	(한 빛) 이종선 강자영 이임생 (한 샘) 조춘희 김덕순 서영희 민기숙 장은라 (한사랑)이수원 김화자 원경옥 조정순 류현일		
연도	표어 교회 연표	한 빛	한 샘	-	한 사 랑	여전도회 연표 [범례: ●교회연합 ♥사회봉사 ♣보조 ♪선교 ★사회표창 ♡교회봉사 ☆교회기념 ※여전도회관련 주보광고]		
1991	희년을 준비하자 안동어린이집 개원 북방선교헌금 실시 하고 전액 적립하 기로 한누리 남선교회 창립(60세 이상)	이 종 선	조 춘 희	-	이 수 원	4월 4일 권사 임직(13명): 김태진 김옥순 유정자 변상방 이임생 김정희 서영 희 장은라 조춘희 정화성 김희수 민기숙 김희진 5월 5일 박숙란 여성장로(대우) 피택 9월 2일 교육관에 안동어린이집(탁아소)을 개원하다 (명예원장: 윤화자) △ 한빛 보조: 기독교방송, 양평 금왕교회(1997년까지) △ 한샘 보조: 양평 삼가리교회(매월, 1998년까지) 사회봉사: 안양교도소 성경학교 지원, 장기수와 자매결연		

연도	제작자	제작주제	제작장소	제작기한	제작내용	
					제작주제	제작내용
1992	이종선	김덕순	-	김화자	저녁 성가대가 당회 직속 위원회 성가대에 포함된다 선교: 브라질 선교(목만수 선교사) 지원 사회봉사: 안양교도소 성경학교 지원, 장기수와 자매 결연(한샘·한빛, 1993) △ 한빛 보조: 여전도회관 건립금 250만 원 △한샘 보조: 경실련(연 24만 원) 사회봉사: 경실련 알뜰가게, 난지도 밀알어린이집 (1995년까지) △ 한사랑 보조: 김포 금곡중앙교회(1997년까지)	
1993	강자영	서영희	-	원경옥	1월 3일 제11대 전도사김장세 부임(2004년 사임) 1월 3일 이혜순, 아동부 전도사로 부임 2월 7일 이혜순, 제12대 여교역자로 부임(1997년 10월 27일 사임) 6월 13일 김경남 전도사 근속 20년 표창 8월 20일 TBC 성서연구 수료식(1990년 9월 11일 시작한 성서연구 과정으로 7월 30일에 마침. 총 88명 수료) 12월 12일 류금주, 유치부 전도사로 부임 저녁 성가대가 이름을 한솔 찬양대(지휘: 황재금)로 바꾸어 발족하다 △ 한사랑 새생활부 창설, 폐품 수집 및 재활용 사업 전개	

1994	우리 농촌을 살리자 예배순서 중 하나 님의 임재를 알리는 징을 세 번 치기 시작하다 파이프오르간 설치 를 위한 예배당 개 축공사 파이프오르간 봉헌	강 자 영	민 기 숙	-	조 정 순	한솔찬양대(대장: 계명의, 지휘: 황재금, 반주: 노기복) 안동교회 여전도회 역사 편찬 위한 기금 모금 시작(통 장과 도장 관리: 김효수, 김경호) 사회봉사: 안양교도소 성경학교 지원, 장기수와 자매 결연(1994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여전도회 전체 사 회봉사로 진행) △ 한빛 보조: 정신요양원(지경숙, 1996년까지) 사회봉사: 정신요양원(1996년까지) △ 한샘 환경운동 계속
1995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교회음악연주회 시 작 농촌목회연구원 제 1회 수련회 전도학교 개강 신앙 부흥회(강사: 김선운 목사) 전교인 운동회	이 임 생	장 은 라	-	류 현 일	3월 9일 전도학교를 12주 과정으로 개강하다(6월 4일 1기생 34명 수료, 12월 10일 2기생 23명 수료) △ 한빛 보조: 서울여자대학교 강당건축, 장로회신학대학 건축, 춘천 서산교회(1997년까지) △ 한샘 보조: 베데스다(2001년 현재까지)

¶ 기독교 문화를 꽂피우다 (1996–2000)

담임목사	유경재	남성 부교역자		안광덕 고현영 변창배	여성 부교역자	김장세 이혜순 류금주
시무장로	이효종 이 본 민대홍 김충기 민석홍 송재욱 이정섭 흥영표 유승재 이강룡 허 윤 박숙란 조기현 윤상구 이정숙 이주영 추영일		여전도회 회장	(한 빛) 이임생 신경희 김효수 김옥순B 서영희 (한 샘) 박경자 오군자 계명의 김혜자 류난영 (한사랑) 유명옥 민경숙 이선오 양은선 민혁근		
연도	표어 교회 연표	한 빛	한 샘	–	한 사 람	여전도회 연표 [범례: ●교회연합 ♦사회봉사 ♣보조 ♪선교 ★사회표창 ♡교회봉사 ☆교회기념 ※여전도회관련 주보광고]
1996	<p>그물을 넓게 던져라</p> <p>농촌목회연구원 제2회 수련회</p> <p>본 교단 초대 여성 장로 박숙란 임직</p> <p>안동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p> <p>교회당 옥상 방수 공사</p> <p>제1회 교회음악 지도자 실기 특별강좌</p> <p>전교인 수련회(강사: 정태일 목사)</p> <p>제12대 여교역자 이혜순 부임</p>	이 임 생	박 경 자	–	유 명 애	<p>4월 28일 박숙란, 대한예수교장로회 첫 여성 장로로 장립</p> <p>4월 28일 권사 임직(11명): 송숙자 이인선 신경희 강신자 곽순영 문영임 장문자 송숙연 오군자 홍세진 김경호</p> <p>6월 9일 안동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http://www.aroma.co.kr/andong/)</p> <p>6월 9일 여전도회 역사자료 편찬위원회 구성(9명): 위원장: 이정숙, 서기: 계명의 위원: 조화순 이종선 송영자 이주영 이순례 계명의 조정순 양은선</p> <p>이후 6월 20일과 11월 5일 위원회 개최 후 활동 중단</p> <p>9월 본 교단 첫 여성 목사고시에서 본 교회 목사 후보생 이혜순, 류금주 모두 합격</p> <p>10월 25일 이혜순, 본 교회 부목사로 청빙 받아 서울 노회에서 목사 안수</p>

						사회봉사: 동곡 중증 장애인 요양소 △ 한빛 보조: 인도네시아 선교 센터 건립 기금 △ 한사랑 보조: 서울 YWCA 건축
1997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 농촌목회연구원 제3회 수련회 효행상 시상 시작 북한동포돕기 현금 독거노인 반찬배달 시작	신경희	오군자	-	민경숙	3월 교회 주변 생활 보호 대상자 18명의 노인에게 월1회 반찬 배달 시작 ☆ 5월 11일 제1회 효행상 시상 수상자: 조윤자 집사(고 오현주 권사 자부) 12월 14일 권사 임직(14명): 홍승희 나영애 윤복희 김옥순 계명신 장세순 최야란 한계명 목갑수 이순례 박경자 계명의 고옥희 김혜자 보조: 서부 장애인 종합 복지관(연20만 원), 동곡 중증 장애인 요양소(1998년까지) 사회봉사: 서부 장애인 종합 복지관
1998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교회 토요 1부 예배 신설	김효수	계명의	-	이선옥	한솔찬양대(대장: 박숙란, 지휘: 신현숙, 반주: 구현정) 3월 이슬비전도대 발족(대장: 오군자) ☆ 5월 10일 제2회 효행상 시상 수상자: 김용근·이춘우 집사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시작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노숙자 점심식사 봉사 9월 6일 안동교회 홈페이지 주소 변경 http://www.andong-ch.org 10월 18일 이슬비 전도 편지 가족 초청 예배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1부 예배를 신설하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 한빛 보조: 홍천 화방교회(2001년까지)

							△ 한샘 밥상공동체(청년부, 매주 토요 1부 예배 후) 사회봉사: 노숙자 점심(용산역 광장, 6회×600명 분), 노인 점심(독립문공원), 수재 이재민 식사(노 원공릉교회), 노숙자 한가위잔치(용산역 광장, 떡 8말) △ 한사랑 보조: 여수 경호교회(2000년까지)
1999	신앙의 전통을 잇는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 음악회 문순 작가의 성화 「십자가상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94」, 「예수-십자가의 길」 구입, 봉헌 창립 90주년기념 전교인 체육대회	김우순 B	김혜자	-	양인선		<p>☆ 5월 9일 제3회 효행상 시상 수상자: 조심·조영자 집사</p> <p>5월 23일 알뜰바자회</p> <p>6월 13일 제2회 이슬비 전도 편지 가족 초청 예배</p> <p>10월 24일 <사랑의 맛 잔치></p> <p>10월 31일 안동교회 창립 90주년 기념 「여전도회의 날」 주관(여전도회 발전사, 작품 전시회, 찬양, 증경회장 14명에게 금메달 증정, 기념품 제작)</p> <p>12월 5일 여성 장로 임직(2명): 이정숙 이주영</p> <p>12월 5일 권사 임직(6명): 이경자 이춘우 윤화자 유혜순 유준자 조정귀</p> <p>교회 연합사업: 9월 28일 서울 여전도회 연합회(회장: 김희진) 75회 총회를 안동교회에서 개최</p> <p>△ 한빛 보조: 신철원중앙교회(2004년까지), 용인 고기교회 (2004년까지)</p> <p>△ 한샘 보조: 호남 사회 복지회(전남 광주, 2000년까지), 강원도 신일교회(2004년까지)</p>

2000	말씀 따라 이루는 새 천년 2000년 맞이 예배 제6회 농촌목회연 구원 수련회 제13대 여교역자 류금주 부임 교회당 증개축 공사 시작	서영희	류난영	-	민혁근	3월 2일 류금주, 제13대 여교역자로 부임 4월 27일 류금주, 본 교회 부목사로 청빙 받아 서울노회에서 목사 안수(2005년 1월 1일 협동목사로 이임) ☆ 5월 14일 제4회 효행상 시상 수상자: 박종한·신선자 집사 교회 연합사업: 9월 28일 서울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 제22회 자선 음악회에 출연(지휘: 송숙연, 장소: 영락교회 베다니홀, 출연자: 회원 47명, 이후 2003년 까지 동 연합회 주관 자선 음악회에 출연)
------	--	-----	-----	---	-----	--

¶ 생명 문화를 가꾸는 교회 (2001–2005)

담임목사	유경재 박병욱	남성 부교역자			변창배 최창해 이성철	여성 부교역자	김장세 류금주 구희숙
시무장로	이효종 이 본 이정섭 홍영표 이강릉 박숙란 조기현 윤상구 이정숙 이주영 추영일 강명준 장문자 임중규 김영석 김용원 박정음				여전도회 회장	(한 빛) 이종선 서영희 장은라 이정숙 조춘희 (한 샘) 최야란 김정수 송숙연 홍세진 신선자 (한 길) 유준자 김경호 이윤희 조정순 오정순 (한사랑) 박정희B 전덕길 황재금 정영란 강재덕	
연도	표어 교회 연표	한 빛	한 샘	한 길	한 사 랑	<p style="text-align: center;">여전도회 연표</p> <p>[범례: ●교회연합 ♥사회봉사 ♣보조 ♪선교 ★사회표창 ♡교회봉사 ☆교회기념 ※여전도회관련 주보광고]</p>	
2001	생명 문화를 가꾸는 교회 부부 선교회 발족 교회당 증개축 공사 완료 『안동교회 90년사』 발간	이종선	최야란	유준자	박정희B	☆ 5월 13일 제5회 효행상 시상 수상자: 박영석 집사·오정순 권사 6월 예배당 증개축 공사를 완료하다(2000년 9월부터 시작) 7월 『안동교회 90년사』를 발간하다(집필: 유경재·류금주)	

							한샘을 2지회로 분리하다: 한샘(58~64세), 한길(47~57세) △ 한길 보조: 양평 목왕교회(2004년까지)
2002	생명 문화를 가꾸는 교회 북촌문화포럼 개최 안동가족캠프 개최 『안동교회 90년사』 와 종 봉헌	서영희	김정수	김경호	전덕길		☆ 5월 12일 제6회 효행상 시상 수상자: 백낙환 집사·박숙란 장로 4월 28일 권사 임직(10명): 윤순미 한인수 김정수 김옥분 지윤혜 류난영 최명애 유경재 김영애 은성순 △ 한사랑 보조: 홍천 화방교회(2004년까지)
2003	생명 문화를 가꾸는 교회 안국역과 자매결연 소허당 개관 제1회 <인터넷선교의 달> 행사 몽골 선교지 방문	장이란	송숙연	이윤희	황재근		☆ 5월 11일 제7회 효행상 시상 수상자: 오원표 집사·김효수 권사 5월 24일 여성 장로 임직(1명): 장문자
2004	생명의 물을 향하여 제11대 담임목사 박병욱 부임 유경재 원로목사 추대 민대홍 원로장로 추대	이정숙	홍세진	조정순	정영란		☆ 5월 9일 제8회 효행상 시상 수상자: 신현표 씨·최명애 권사 8월 바자회 수익금 중 1천불을 몽골연합신학대학교에 입학한 을지자르갈 양의 1년 간 장학금으로 보내다 8월 29일 제11대 목사 박병욱 부임하다(2007년 7월 15일 사임)

2005	생명을 풍성히 제14대 여교역자 구희숙 부임 교육관 개축 완공	조 춘 희	신 선 자	오 정 순	강 재 덕	1월 2일 제14대 부목사 구희숙 부임하다(2009년 11월 1일 사임) ☆ 5월 8일 제9회 효행상 시상 수상자: 민기숙 권사 △ 한빛 보조: 오송제일교회 △ 한샘 보조: 예닮교회 △ 한길 보조: 오상교회 △ 한사랑 보조: 성주 성광교회
------	---	-------------	-------------	-------------	-------------	--

¶ 주보에서 찾아본 여전도회 활동 (1991–2005)

범례: ●교회연합, ♥사회봉사, ♣보조, ♦선교, ★사회표창, ♡교회봉사, ☆교회기념

주보 일자	여전도회 관련 광고
1991. 8. 18	♡ 9월 2일부터 안동놀이방 개원(만 1세부터 유치원 입학 전까지 유아, 보육 생활 습관지도 식사예절 학습교육)
1991. 9. 15	철야 기도회(전체) 27일(금) 오후 11시 여전도회실
1994. 8. 14	한샘 여전도회 여름 수련회(17일(수)–19일(금) 양평 대명콘도 “주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한샘”) 주제·강사: 김상태 교수(카톨릭의대)
1996. 6. 23	● 여전도회(연합) 나라와 겨레를 위한 6·25 금식 기도회 25일(화) 오전 11시 본 교회
1997. 4. 27	철야 기도회 한샘 1일(목) 오후 9:30 여전도회실 ♡ <1일 기도회> 한빛 1일(목) 오전 11:00 기도실 효행상 금년부터, 효의 덕을 높이고자. 심사위원: 박숙란 송재욱 오원표 이삼형 이종선 김영한 김윤수 수도원 농장: 기도와 노동을 위한 농사짓기 자매결연 은성수도원(엄두섭 원장)에서 매주 화요일 한샘 여전도회 야외예배 29일(화) 청계산 ☆ 축하: 윤화자 집사, ‘사랑의 문화 봉사단’ 주관 음악회, 28일(월) 오후 7시 문예회관

주보 일자	여전도회 관련 광고
1997. 8. 10	1989년부터 남북한 그리스도인들은 매년 8·15 직전 주일을 세계 기독교인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공동 기도 주일로 정하여 지킵니다. 3~10일은 공동 기도 주간 한샘 여전도회 14일(목)~16일(토) 포천 보화보육원에서 수련회 주월영 권사 6일 별세, 8일 장례(옥천)
1997. 10. 19	♥ 한사랑 여전도회 금곡중앙교회 탐방 ♡ <사랑의 맛 잔치>(여전도회 연합) 다음 주 예배 후 친교실 한빛 기도회 21일(화) 오전 11시 여전도회실에서
1998. 5. 3	♥ 안양교도소 방문 한샘 – 4일(월) 8:30 교회서 출발 심야 기도회 한사랑 – 8일(금) 9:30
1998. 7. 12	♡ 제1회 사회봉사국 봉사자 수련회 15일 (수) 10~15시까지 교회 여전도회실에서 개최. 제직회 사회봉사 국원과 봉사자(독거노인반찬배달, 이미용봉사, 목욕봉사, 지역사회 장학봉사)의 참가 요망
1998. 9. 13	여전도회 수련회 준비 기도회(실행위원회) 예배 후 1:30 여전도회실 여전도회 3지회 수련회 15일(화) 불광동 기독교수양관, 주제: “크리스챤의 선교적 사명” 강사: 김동호 목사 ♡ 늘푸른교실 16일(수) 이주영 권사(YWCA 회장) “밝은 대화 건강한 가정”
1998. 11. 15	한빛 기도회 17일(화) 오전 11시 여전도회실에서 심야 기도회 20일(금) 오후 9:30 여전도회실에서 ♡ 청년회 밤상 공동체 21일(토) 오후 5시 수험생들 초대하여 한샘 여전도회 여전도 회원 중심으로 16일(월) 오후 2시 윤상구 장로 댁 정원에서 진다접빈례(進茶接賓禮) 시범과 운화차 시범
1999. 4. 25	♡ 한솔찬양대 예배 후 찬양 연습 한샘 여전도회 27일(화) 오전 9시 잠실교회 기도원으로 야외예배 심야 기도회 30일(금) 오후 9시30분 여전도회실에서(전체) ♡ <1일 기도회> 1일(토) 오전 11시 기도회에서(한샘) ♠ 알뜰 바자회: 여전도회 3지회가 주관하는 아나바다 알뜰 바자회를 5월 23일 주일에 개최. 다음 주일(2일)부터 기증물품 교회 현관에서 접수 품목: 가전제품, 도자기, 서화, 악기, 장난감, 도서, 음반, 컴퓨터 제품, 가방, 의류, 기타 생필품 일체

주보 일자	여전도회 관련 광고
1999. 10. 17	<p>♡ 24일 여전도회에서 <사랑의 맛 잔치> 개최 31일 여전도회에서 작품 전시회 개최 기념예배 드림 각 선교회 월례회, 오늘 예배 후 각 선교회 모임 장소에서 한솔찬양대 오늘 오후 1:30 찬양대실에서 심야 기도회-22일(금) 오후 9:30 여전도회실에서</p> <p>♡ 늘푸른교실 봉사자 모집 학감 김경호 권사에게 신청해 주시길</p>
1999. 11. 28	<p>♡ 한솔찬양대 오후 3시 찬양대실에서 심야 기도회 26일(금) 오후 9시30분 여전도회실에서(한샘) ♡ <1일 기도회> 1일(수) 오전 11시 기도실에서(한사랑)</p> <p>♣ 한샘 여전도회에서 서면중앙교회 성전 건축 기금 지원 위해 호박 농축액을 판매(박스 당 3만원)</p>
2000. 5. 28	<p>심야 기도회 2일(금) 오후 9:30 여전도회실에서(한샘) ♠ 알뜰 바자회 28주일 친교실과 남선교회실에서 개최</p>
2000. 8. 27	<p>♡ 안동 생협 예배 후 참석자-이정숙 장문자 김휴숙 김영자 김정단 문유심 전정님 박병례 ♡ 한솔찬양대 2일(토) 오후 3시 기도실에서 찬양 연습 3여전도회 연합 수련회 1일(금) 장심리수양관(곤지암) 강사: 고현영 목사, 김장세 전도사. 이에 따라 <1일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쉽니다</p>
2000. 9.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여전도회 연합 합창단이 서울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 <나그네 쉼터를 위한 제22 회 자선 음악회>에 참가. 28일(목) 오후 6시 영락교회 베다니홀에서 <p>오늘부터 안동 생협 개장</p>
2001. 4. 22	<p>예배 후 남녀 선교회와 부부 선교회가 각각 모임 한빛 기도회 겸 야외예배 24일(화) 오전 9시 양평 대명콘도 한샘 야외예배 24일(화) 장흥 '자연과 우리'로 한길 야외예배 24일(화) 오전 9:50 청량리발 기차 강촌으로 남선교회: 3-4월에 매주일 "사랑의 인사 나누기 운동" 교우들 간에 따뜻한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람(인사말: 사랑합니다)</p>
2001. 6. 3	<p>♡ 한솔찬양대 오후 1시 찬양대실 연습 ♥ 안양교도소 4일 오전 9시 출발 ♠ 아나바다 알뜰 바자회 친교실</p>

주보 일자	여전도회 관련 광고
2001. 9. 9	<p>여전도회 1시 여전도회실에서 찬양 연습; 심야 기도회 14일(금) 오후 9:30 여전도회실(한길)</p> <p>♡ 한솔찬양대 1시 찬양대실에서 찬양 연습</p> <p>♡ 안동 생협 매장을 9일(주일)부터 매월 둘째 주일과 넷째 주일 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희진 권사, 여전도회 전국 연합회 제66회 총회 부서기로 선출
2001. 10. 14	심야 기도회 19일(금) 오후 9:30 여전도회실 한사랑
2002. 2. 24	<p>심야 기도회 1일(금) 오후 9시 여전도회실 한샘</p> <p>3월 1일(금) 오전 11시 경복교회에서 모이는 세계 기도일 예배 참석. <1일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음</p>
2002. 4. 7	<p>12일(금), 오후 9시 심야 기도회 여전도회실 한길</p> <p>♠ 4지회 공동 아나바다 알뜰 바자회 5월 26일 주일 개최. 기증 품목: 가구, 의류, 도서, 완구, 그릇, 카셋트 테이프, 기타 생활 필수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임: 김희진 권사 2일(화) 영락교회서 개최된 서울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 회장 선출
2002. 6. 2	<p>심야 기도회 7일(금) 오후 9시 여전도회실 한샘</p> <p>♠ 여전도회 알뜰 바자회 통해서 모아진 선교비는 1,906,400원</p>
2002. 10. 6	<p>♡ 안양교도소 7일(월) 오전 9시 출발(한길)</p> <p>심야 기도회 11일(금) 오후 9시 여전도회실 한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10일(목) 우리 교회에서 부회와 평생 회원의 날 행사 가짐, 강사 유병국 선교사 <p>여전도회 연합 특강 13일 주일 오후 2시 예배당, 항존직 세미나 겸해, 강사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p> <p>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2002 삶과 죽음 월요강좌” 10. 7–11. 25 매주 월 오후 2–4시 예배당에서 모임, 등록비 5만</p> <p>☆ 전시회: 윤남경 권사 사진전 “성지의 향기” 개막식 9일(수) 오후 5시 조홍갤러리</p>
2002. 10. 13	<p>여전도회 음악 연습 1시 여전도회실에서</p> <p>심야 기도회 18일(금) 오후 9:30 여전도회실 한사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일(목) 오후 6시 새문안교회서 서울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자선 합창단에 참가
2003. 6. 1	<p>봉사국 헌신예배 22일 주일</p> <p>♡ 안양교도소 2일(월) 오전 9시</p> <p>♡ <1일 기도회> 2일(월) 오전 11시 기도실</p>

주보 일자	여전도회 관련 광고
	<p>심야 기도회 6일(금) 오후 9시 여전도회실 한샘</p> <p>♠ 지난 주 여전도회 아나바다 장터 1,534,250원 수익금, 전액 청년부 몽골 선교지 방문 후원으로</p> <p>● 5일(목) 오전 10:30 서울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2003 여성 선교대회 개최 강사 음동성 목사(동교동교회 시무)</p>
2003. 8. 24	<p>여전도회 연합 수련회 29일(금) 진광 전원교회, 주강사: 정남용 목사(장석교회), 주제: “눈 감은 여성, 눈뜬 여성”</p>
2004. 8. 15	<p>심야 기도회 20일(금) 오후 9시 여전도회실에서 한사랑 주관</p> <p>♠ 여전도회 바자회 수익금 중 1천 불을 몽골연합신학대학교에 입학한 을지자르갈 양의 1년 간 장학금으로 보냈습니다</p>
2005. 6. 26	<p>♡ <1일 기도회> 1일(금) 오전 11시 기도실(한사랑 주관)</p> <p>심야 기도회 1일(금) 오후 9시 예배당(찬양: 한사랑)</p> <p>남선교회 조찬 기도회 2일(토) 6:30 회의실 한누리</p> <p>♠ 아나바다 알뜰 바자회 오늘</p>
2005. 9. 4	<p>● 여전도회 전국 연합회 총회 6일(화)~10일(토) 백주년기념관에서</p> <p>♥ 한사랑 여전도회가 돋고 있는 성주 성광교회 어린이 청소년 위해 책 수집. 수집 기간 4일, 11일</p>
2005. 11. 6	<p>♥ 안양교도소 방문 7일(월) 오전 8:45 출발</p> <p>심야 기도회 11일(금) 오후 9시 예배당(찬양: 11, 12, 13교구)</p> <p>♡ <사랑의 맛 잔치>. 친교실. 수익금은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p>

¶ 여전도회 역대 회장 (1990~1999)

no.	이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2	이정숙	한샘3	—	—	—	—	—	—	—	—	—
23	강자영	—	—	—	한빛3	한빛4	—	—	—	—	—
24	이신영	—	—	—	—	—	—	—	—	—	—
25	김희진	—	—	—	—	—	—	—	—	—	—
26	계명의	—	—	—	—	—	—	—	—	한샘2	—
27	김영한	—	—	—	—	—	—	—	—	—	—

※ 1. 'no.'는 각 사람의 여전도회 역대 회장 명단 등재 고유번호로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2. 각 지회 명칭 뒤의 숫자는 회장 역임 누적 회수를 뜻한다.
3. 칸이 진하게 표시된 경우는 최종 역임을 뜻한다.

no.	이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8	윤은미	—	—	—	—	—	—	—	—	—	—
29	오군자	—	—	—	—	—	—	—	한샘2	—	—
30	유옥근	—	—	—	—	—	—	—	—	—	—
31	김희수	—	—	—	—	—	—	—	—	—	—
32	이주영	—	—	—	—	—	—	—	—	—	—
33	김혜자	—	—	—	—	—	—	—	—	—	한샘2
34	송영자	한빛2	—	—	—	—	—	—	—	—	—
35	유준자	—	—	—	—	—	—	—	—	—	—
36	김경호	한사랑1	—	—	—	—	—	—	—	—	—
37	이종선	—	한빛1	한빛2	—	—	—	—	—	—	—
38	조춘희	—	한샘1	—	—	—	—	—	—	—	—
39	이수원	—	한사랑1	—	—	—	—	—	—	—	—
40	김덕순	—	—	한샘1	—	—	—	—	—	—	—
41	김화자	—	—	한사랑1	—	—	—	—	—	—	—
42	서영희	—	—	—	한샘1	—	—	—	—	—	—
43	원경옥	—	—	—	한사랑1	—	—	—	—	—	—
44	민기숙	—	—	—	—	한샘1	—	—	—	—	—
45	조정순	—	—	—	—	한사랑1	—	—	—	—	—
46	이임생	—	—	—	—	—	한빛1	한빛2	—	—	—
47	장은라	—	—	—	—	—	한샘1	—	—	—	—
48	유현일	—	—	—	—	—	한사랑1	—	—	—	—
49	박경자	—	—	—	—	—	—	한샘1	—	—	—
50	유명옥	—	—	—	—	—	—	한사랑1	—	—	—
51	신경희	—	—	—	—	—	—	—	한샘1	—	—
52	민경숙	—	—	—	—	—	—	—	한사랑1	—	—
53	김효수	—	—	—	—	—	—	—	—	한빛1	—
54	이선옥	—	—	—	—	—	—	—	—	한빛1	—
55	김옥순B	—	—	—	—	—	—	—	—	—	한샘1
56	양은선	—	—	—	—	—	—	—	—	—	한사랑1

※ 1. 'no.' 는 각 사람의 여전도회 역대 회장 명단 등재 고유번호로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2. 각 지회 명칭 뒤의 숫자는 회장 역임 누적 회수를 뜻한다.

3. 칸이 진하게 표시된 경우는 최종 역임을 뜻한다.

5.2 교회를 섬긴 여성들 3 (1994–2003)

¶ 안동교회 역대 여성제직 명단 (1994–2003)

■ 전도사 ■ 시무권사 ■ 서리집사 ■ 명예권사 ■ 은퇴권사
 ■ 피택권사 ■ 피택장로 ■ 장로 ■ 목사 ■ 은퇴장로

no.	입회	이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재직 연도
1	15	윤경희	1	1	0	0	0	0	0	0	0	0	2	1994
2	18	이순정	1	1	1	1	0	0	0	0	0	0	4	"
3	24	공덕귀	1	1	1	1	0	0	0	0	0	0	4	"
4	26	주월영	1	1	1	1	0	0	0	0	0	0	4	"
5	37	김순식	1	1	1	1	1	0	0	0	0	0	5	"
6	42	서효애	1	1	1	1	1	0	0	0	0	0	5	"
7	47	박희성	1	1	1	0	0	0	0	0	0	0	3	"
8	48	이화자	1	1	1	1	1	1	1	1	1	1	10	"
9	49	이혜선	1	1	1	1	1	1	1	1	1	1	10	"
10	50	민정홍	0	0	0	0	0	0	0	1	1	1	3	"
11	61	이인선	1	1	1	1	1	1	1	1	1	1	10	"
12	62	이삼득	1	1	1	1	1	1	1	1	1	0	9	"
13	63	홍유남	1	1	0	0	0	0	0	0	0	0	2	"
14	68	김수천	1	1	1	1	1	1	1	1	1	1	10	"
15	70	유정자	1	1	1	1	1	1	1	1	1	1	10	"
16	71	안권선	1	1	1	1	0	0	0	0	1	1	6	"
17	73	유연준	1	1	1	1	1	1	1	1	1	1	10	"
18	75	박상순	1	1	1	1	1	1	1	1	1	1	10	"
19	76	강자영	1	1	1	1	1	1	1	1	1	1	10	"
20	77	박숙란	1	1	1	1	1	1	1	1	1	1	10	"

※ 1. 'no.'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no.	입회	이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재직 연도
21	80	이윤돌	1	1	0	0	0	0	0	0	0	0	2	1994
22	84	김남금	1	1	1	0	0	0	0	0	0	0	3	"
23	91	장경희	1	1	1	1	1	1	1	1	1	1	10	"
24	94	조화순	1	1	1	1	1	1	1	1	1	0	9	"
25	95	이신영	1	1	1	1	1	1	1	1	1	0	9	"
26	96	오정숙	1	1	1	1	1	1	1	1	1	1	10	"
27	100	민기숙	1	1	1	1	1	1	1	1	1	1	10	"
28	102	유옥근	1	1	1	1	1	1	1	1	1	1	10	"
29	104	이근희	1	1	1	0	0	0	0	0	0	0	3	"
30	106	정화성	1	1	1	1	1	1	1	1	1	1	10	"
31	107	이정숙	1	1	1	1	1	1	1	1	1	1	10	"
32	108	윤경남	1	1	1	1	1	1	1	1	1	1	10	"
33	109	이주영	1	1	1	1	1	1	1	1	1	1	10	"
34	110	이종선	1	1	1	1	1	1	1	1	1	1	10	"
35	113	박숙녀	1	1	1	1	1	1	1	1	0	0	0	"
36	115	주영자	1	1	1	1	1	1	1	1	1	0	0	"
37	122	서정남	1	1	1	1	1	1	0	0	0	0	6	"
38	130	조계숙	1	1	1	1	0	0	0	0	0	0	4	"
39	131	이혜정	1	0	0	0	0	0	0	0	0	0	1	"
40	132	이용하	1	1	1	1	1	1	0	0	0	0	6	"
41	133	이기화	0	0	1	0	0	0	0	0	0	0	1	"
42	138	김영한	1	1	1	1	1	1	1	1	1	1	10	"
43	141	김효수	1	1	1	1	1	1	1	1	1	1	10	"
44	145	윤예경	1	1	1	1	1	1	1	1	0	0	8	"
45	147	김향숙	0	0	0	0	1	1	1	1	1	1	6	"
46	152	신경희	1	1	1	1	1	1	1	1	1	1	10	"
47	153	김희진	1	1	1	1	1	1	1	1	1	1	10	"
48	155	원종옥	0	0	0	0	0	0	0	1	1	1	3	"

※ 1. 'no.'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no.	입회	이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재직 년도
49	157	김선복	1	1	1	1	1	1	1	1	0	0	8	1994
50	160	김경남	1	1	0	0	0	0	0	0	0	0	2	"
51	163	문창아	1	1	1	1	1	1	1	1	1	1	10	"
52	164	김수원	1	1	1	1	1	1	1	1	1	1	10	"
53	166	송숙연	1	1	1	1	1	1	1	1	1	1	10	"
54	169	김계영	0	0	0	0	1	1	1	1	1	1	6	"
55	170	계명의	1	1	1	1	1	1	1	1	1	1	10	"
56	175	이영희	1	0	0	0	0	0	0	0	0	0	1	"
57	176	이규숙	1	1	1	1	1	1	1	1	1	1	10	"
58	177	조말일	1	1	0	0	0	0	0	0	0	0	2	"
59	178	신사라	1	1	0	0	0	0	0	0	0	0	2	"
60	179	이용순	1	1	1	1	1	1	1	1	1	1	10	"
61	180	송영자	1	1	1	1	1	1	1	1	1	1	10	"
62	181	장은라	1	1	1	1	1	1	1	1	1	1	10	"
63	182	김덕순	1	1	1	1	1	1	1	1	1	1	10	"
64	185	장문자	1	1	1	1	1	1	1	1	1	1	10	"
65	186	정귀옥	1	1	0	0	0	0	0	0	0	0	2	"
66	190	서영희	1	1	1	1	1	1	1	1	1	1	10	"
67	191	윤순미	1	1	1	1	1	1	1	1	1	1	10	"
68	192	이순례	1	1	1	1	1	1	1	1	1	1	10	"
69	193	조정귀	1	1	1	1	1	1	1	1	1	1	10	"
70	194	조춘희	1	1	1	1	1	1	1	1	1	1	10	"
71	195	김연옥	1	1	1	0	0	0	0	0	0	0	3	"
72	196	김윤수	1	1	1	1	1	1	1	1	1	1	10	"
73	197	김정희	1	1	1	1	1	1	1	1	1	1	10	"
74	201	조윤자	1	1	1	1	1	1	1	1	1	1	10	"
75	202	한성자	1	1	1	1	1	1	1	1	1	1	10	"
76	205	장분옥	1	1	1	0	0	0	0	0	0	0	3	"

※ 1. 'no.'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no.	입회	이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재직 년도
77	206	이양순	1	0	0	0	0	0	0	0	0	0	1	1994
78	208	곽윤희	1	1	1	1	1	1	1	1	1	1	10	" (곽순영과 동일 인물)
79	209	김태진	1	1	1	1	1	1	1	1	1	0	9	"
80	210	김혜자	1	1	1	1	1	1	1	1	1	1	10	"
81	211	김희수	1	1	1	1	1	1	1	1	1	1	10	"
82	212	박경자	1	1	1	1	1	1	1	1	1	1	10	"
83	215	오군자	1	1	1	1	1	1	1	1	1	1	10	"
84	216	류교영	1	1	1	1	0	0	0	0	0	0	4	"
85	217	유준자	1	1	1	1	1	1	1	1	1	1	10	"
86	218	유혜숙	1	1	1	1	1	0	0	0	0	0	5	"
87	220	은성순	1	1	1	1	1	1	1	1	1	1	10	"
88	221	이경자	1	1	1	1	1	1	1	1	1	1	10	"
89	222	김경선	1	1	1	1	1	1	1	1	1	1	10	"
90	223	김방자	1	1	1	1	1	1	1	1	1	1	10	"
91	224	김형주	1	1	1	1	1	1	1	1	1	1	10	"
92	225	김휴숙	1	1	1	1	1	1	1	1	1	1	10	"
93	232	이임생	1	1	1	1	1	1	1	1	1	1	10	"
94	233	지윤혜	1	1	1	1	1	1	1	1	1	1	10	"
95	235	최명애	1	1	1	1	1	1	0	0	1	1	8	"
96	236	황정애	0	0	0	0	0	0	0	1	1	1	3	"
97	238	김경호	1	1	1	1	1	1	1	1	1	1	10	"
98	239	김혜숙	1	1	1	1	1	1	1	1	1	1	10	"
99	240	박애순	1	1	1	1	1	1	1	1	0	0	8	"
100	241	송숙자	1	1	1	1	1	1	1	1	1	1	10	"
101	242	원경옥	1	1	1	1	1	1	1	1	1	1	10	"
102	244	이순자	1	1	0	0	0	0	0	0	0	0	2	"
103	245	최명자	1	1	1	1	1	1	1	1	1	1	10	"
104	246	최예순	1	1	1	1	1	1	1	1	1	1	10	"

※ 1. 'no.'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no.	입회	이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재직 년도
105	248	권혁제	1	1	1	1	1	1	1	1	1	1	10	1994
106	250	김영기	1	1	1	1	1	1	1	1	1	1	10	"
107	251	김화자	1	1	1	1	1	1	1	1	1	1	10	"
108	254	이경의	1	1	1	0	0	0	0	0	0	0	3	"
109	255	이정자	1	1	1	1	1	1	1	1	1	1	10	"
110	256	이효순	1	0	0	0	0	0	0	0	0	0	1	"
111	258	윤달현	1	1	1	1	1	1	1	1	1	1	10	"
112	260	김광숙	1	1	0	0	0	0	0	0	0	0	2	"
113	262	나영덕	1	1	1	1	1	1	1	1	1	1	10	"
114	263	문영임	1	1	1	1	1	1	1	1	1	1	10	"
115	266	변상방	1	1	1	1	1	1	1	1	1	1	10	"
116	267	송용희	1	1	1	0	0	0	0	0	0	0	3	"
117	268	유혜순	1	1	1	1	1	1	1	1	1	1	10	"
118	269	이윤희	1	1	1	1	1	1	1	1	1	1	10	"
119	271	정태순	1	1	1	1	1	1	1	1	1	1	10	"
120	272	최야란	1	1	1	1	1	1	1	1	1	1	10	"
121	273	홍세진	1	1	1	1	1	1	1	1	1	1	10	"
122	274	황정렬	1	1	1	1	1	1	1	1	1	1	10	"
123	275	강춘자	1	1	1	1	1	1	1	1	1	1	10	"
124	276	송고순	1	1	1	0	0	0	0	0	0	0	3	"
125	277	송화자	1	1	1	1	1	1	1	1	1	1	10	"
126	278	엄영재	1	1	1	1	1	1	1	1	1	1	10	"
127	280	장세순	1	1	1	1	1	1	1	1	1	1	10	"
128	282	강신자	1	1	1	1	1	1	1	1	1	1	10	"
129	283	김금순	1	1	1	1	1	0	0	0	0	0	5	"
130	284	김순덕	1	1	1	1	1	1	1	1	1	1	10	"
131	285	김영분	1	1	1	1	1	1	1	1	1	1	10	"
132	286	김옥순A	1	1	1	1	1	1	1	1	1	1	10	"

※ 1. 'no.'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no.	입회	이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재직 연도
133	287	김옥순B	1	1	1	1	1	1	1	1	1	1	10	1994
134	288	김자온	1	1	1	1	1	1	0	0	0	0	6	"
135	289	김정수	1	1	1	1	1	1	1	1	1	1	10	"
136	290	김춘식	0	0	0	0	1	1	1	1	1	1	6	"
137	291	김효순	1	1	1	1	1	1	1	1	1	1	10	"
138	292	목갑수	1	1	1	1	1	1	1	1	1	1	10	"
139	293	문순이	1	1	1	1	1	1	1	1	1	1	10	"
140	294	민경숙	1	1	1	1	1	1	1	1	1	1	10	"
141	295	박신영	1	1	1	1	1	1	0	0	0	0	6	"
142	298	유현일	1	1	1	1	1	1	1	1	1	1	10	"
143	299	윤숙자	1	0	0	0	0	0	0	0	0	0	1	"
144	300	이인희	1	1	1	1	1	1	1	1	1	1	10	"
145	301	이해봉	1	1	1	1	1	1	1	1	1	1	10	"
146	302	임정희	1	1	1	0	0	0	0	0	0	0	3	"
147	303	전정님	1	1	1	1	1	1	1	1	1	1	10	"
148	304	조순자	1	1	1	1	1	1	1	0	0	0	7	"
149	305	조정순	1	1	1	1	1	1	1	1	1	1	10	"
150	306	최문수	1	1	1	1	1	1	1	1	1	1	10	"
151	307	홍승희	1	1	1	1	1	1	1	1	1	0	9	"
152	308	김영애	1	1	1	1	1	1	1	1	1	1	10	"
153	309	김정숙	1	1	1	1	1	1	1	0	0	0	7	"
154	311	박정희	1	1	1	1	1	1	1	1	1	1	10	" (박정희A와 동일 인물)
155	312	심재순	1	1	1	0	0	0	0	0	0	0	3	"
156	313	이선옥	1	1	1	1	1	1	1	1	1	1	10	"
157	314	이정숙B	1	1	1	1	0	0	0	0	0	0	4	"
158	315	조명자	1	1	1	1	1	1	1	1	1	1	10	"
159	316	최재순	1	1	1	1	1	1	1	1	1	1	10	"
160	317	추옥희	1	1	1	1	1	1	1	1	1	1	10	"

※ 1. 'no.'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no.	입회	이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재직 년도
161	318	황재금	1	1	1	1	0	0	0	0	1	1	6	1994
162	322	임기주	1	1	1	0	0	0	0	0	0	0	3	"
163	324	이순학	1	1	1	1	1	1	1	1	1	1	10	"
164	325	갈희선	1	1	1	1	1	1	1	1	1	1	10	"
165	326	강금순	1	1	1	1	1	1	1	1	1	1	10	"
166	327	고옥희	1	1	1	1	1	1	1	1	1	1	10	"
167	328	류난영	1	1	1	1	1	1	1	1	1	1	10	"
168	329	양은선	1	1	1	1	1	1	1	1	1	1	10	"
169	330	오정순	1	1	1	1	1	1	1	1	1	1	10	"
170	331	윤복희	1	1	1	1	1	1	1	1	1	1	10	"
171	333	조영자	1	1	1	1	1	1	1	1	1	1	10	" (조영자A와 동일 인물)
172	334	한계명	1	1	1	1	1	1	1	1	1	1	10	"
173	336	김감은	1	1	1	0	0	0	0	0	0	0	3	"
174	337	김옥봉	1	1	1	1	1	1	1	1	1	1	10	"
175	338	김재곤	1	1	1	1	1	1	1	1	1	1	10	"
176	339	김재순	1	1	1	1	0	0	0	0	0	0	4	"
177	340	김정수B	1	1	1	1	1	1	1	1	1	1	10	"
178	341	박혜정	1	0	0	0	0	0	0	0	0	0	1	"
179	342	석정녀	1	1	1	1	1	1	1	1	1	1	10	"
180	343	성미나	1	1	1	1	1	1	0	0	0	0	6	"
181	344	신석순	1	1	1	1	1	1	0	0	0	0	6	"
182	345	이경애	1	0	0	0	0	0	0	0	0	0	1	"
183	346	이옥순	1	0	0	0	0	0	0	0	0	0	1	"
184	347	정정자	1	1	1	1	1	1	1	1	1	1	10	"
185	348	최령자	1	1	1	1	1	1	1	1	1	1	10	"
186	349	강옥자	1	1	1	0	0	0	0	0	0	0	3	"
187	350	계명신	1	1	1	1	1	1	1	1	1	1	10	"
188	352	김기숙	1	1	1	1	1	1	1	1	1	1	10	"

※ 1. 'no.' 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no.	입회	이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재직 년도
189	353	김영자	1	1	1	1	1	1	1	1	1	1	10	1994 (김영자A와 동일 인물)
190	354	나영애	1	1	1	1	1	1	1	1	1	1	10	1994
191	355	안부강	1	1	1	1	1	1	1	1	1	1	10	"
192	356	양현옥	1	1	1	1	0	0	0	0	0	0	4	"
193	358	이성분	1	1	1	1	1	1	1	1	1	1	10	"
194	359	이승숙	1	1	1	1	1	1	1	1	1	1	10	"
195	360	이종례	1	1	1	1	1	1	1	1	1	1	10	"
196	361	이춘우	1	1	1	1	1	1	1	1	1	1	10	"
197	362	장정애	1	1	1	1	0	0	0	0	0	0	4	"
198	363	정경영	1	1	1	0	0	0	0	0	0	0	3	"
199	364	정영란	1	1	1	1	1	1	1	1	1	1	10	"
200	365	최묘희	1	1	1	1	1	1	1	1	1	1	10	"
201	366	최서섭	1	1	1	1	1	1	1	1	1	1	10	"
202	367	한기순	1	1	0	0	0	0	0	0	0	0	2	"
203	368	한인수	1	1	1	1	1	1	1	1	1	1	10	"
204	369	김겸응	1	1	1	1	1	1	1	1	1	1	10	"
205	371	김옥분	1	1	1	1	1	1	1	1	1	1	10	"
206	372	문유심	1	1	1	1	1	1	1	1	1	1	10	"
207	373	유완순	1	1	1	1	0	0	0	0	0	0	4	"
208	374	이영희	1	1	1	1	1	1	0	0	0	0	6	"
209	375	이청자	1	1	1	1	1	1	1	1	0	0	8	"
210	376	전덕길	1	1	1	1	1	1	1	1	1	1	10	"
211	377	조순남	1	1	1	1	1	1	1	1	1	1	10	"
212	378	김장세	1	1	1	1	1	1	1	1	1	1	10	"
213	379	홍정자	1	1	1	1	1	1	1	1	0	0	7	"
214	380	서순례	1	1	0	0	0	0	0	0	0	0	2	"
215	381	고복녀	1	1	1	1	1	1	0	0	0	0	6	"
216	382	상경	1	1	0	0	0	0	0	0	0	0	2	"

※ 1. 'no.'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no.	입회	이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재직 년도
217	383	최피신	1	0	0	0	0	0	0	0	0	0	1	1994
218	384	강장연	1	1	1	1	1	1	1	1	1	1	10	"
219	385	성용안	1	1	1	1	1	1	1	1	1	1	10	"
220	386	이성봉	1	1	1	1	1	1	1	1	1	1	10	"
221	387	강재덕	1	1	0	0	0	0	0	1	1	1	5	"
222	388	고명자	1	1	1	1	1	0	0	0	0	0	5	"
223	389	김금희	1	1	1	1	1	1	1	1	1	1	10	"
224	390	노기복	1	1	1	1	0	1	1	1	1	1	9	"
225	391	박경혜	1	1	1	1	1	1	1	1	1	1	10	"
226	392	송혜자	1	1	1	1	1	1	1	1	1	1	10	"
227	393	신순분	1	1	1	1	0	0	0	0	0	0	4	"
228	394	신현자	1	1	1	1	1	1	1	1	1	1	10	"
229	395	오진희	1	1	1	1	0	0	0	0	1	1	6	"
230	396	유관숙	1	1	1	1	0	0	0	0	0	0	4	"
231	397	유란임	1	1	1	1	1	1	1	1	1	1	10	"
232	398	유명옥	1	1	1	1	0	1	1	1	1	1	9	"
233	399	윤화자	1	1	1	1	1	1	1	1	1	1	10	"
234	400	이정선	0	0	1	0	0	0	0	0	0	0	1	"
235	401	전인유	1	0	0	0	0	0	0	0	0	0	1	"
236	402	탁광옥	1	1	1	1	1	1	1	1	1	0	9	"
237	403	강선희	1	1	1	1	1	1	1	1	1	1	10	"
238	404	김길자	1	1	1	1	0	0	0	0	0	0	4	"
239	405	김선희	1	1	1	1	1	1	1	1	1	1	10	"
240	406	김소진	1	1	1	1	1	1	1	1	1	1	10	"
241	407	김진순	1	1	1	1	1	1	1	1	1	1	10	"
242	408	김혜란	1	1	0	0	0	0	0	0	0	0	2	"
243	409	마명남	1	1	1	1	0	0	0	0	0	0	4	"
244	410	박노향	1	1	1	1	1	1	1	1	1	1	10	"

※ 1. 'no.'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no.	입회	이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재직 년도
245	411	선영란	1	1	1	1	1	0	0	0	0	0	5	1994
246	412	송혜규	1	1	1	1	1	1	1	1	1	1	10	"
247	413	오세춘	1	1	1	1	1	1	1	1	1	1	10	"
248	414	유혜정	1	1	1	0	0	0	0	0	1	1	5	"
249	415	윤정수	1	1	1	0	0	0	0	0	0	0	3	"
250	416	이순옥	1	1	1	1	1	1	1	1	1	1	10	"
251	417	이화숙	1	1	1	1	1	1	1	1	1	1	10	"
252	418	전입분	1	1	0	0	0	0	0	0	0	0	2	"
253	419	조영희	1	1	1	1	1	1	1	1	1	1	10	"
254	420	최영실	1	1	1	1	1	1	0	0	0	0	6	"
255	421	홍정희	1	1	1	1	1	1	1	1	1	1	10	"
256	422	곽양금		1	1	1	1	1	1	1	1	1	9	1995
257	423	김명숙		1	1	1	1	1	0	0	0	0	5	"
258	424	김순희		1	1	1	1	1	1	1	1	1	9	"
259	425	노미화		1	1	1	1	1	1	0	0	0	6	"
260	426	민혁근		1	1	1	1	1	1	1	1	1	9	"
261	427	배필수		1	1	1	1	1	1	1	1	1	9	"
262	428	신부순		1	1	1	1	1	1	1	1	1	9	"
263	429	신순예		1	1	1	1	1	1	1	1	1	9	"
264	430	이귀분		1	0	0	0	0	0	0	0	0	1	"
265	431	이상희		1	1	1	1	1	1	1	1	1	9	"
266	432	이영은		1	1	1	0	0	0	0	0	0	3	"
267	433	이월순		1	1	1	1	0	0	0	0	0	4	"
268	434	장미화		1	1	1	1	1	1	1	1	1	9	"
269	435	장호전		1	1	1	1	1	1	1	1	1	9	"
270	436	조은숙		1	1	1	1	1	1	1	1	1	9	"
271	437	진소희		1	1	1	1	1	1	0	0	0	6	"
272	438	최영희		1	0	0	0	0	0	0	0	0	1	"

※ 1. 'no.'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no.	입회	이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재직 년도
273	439	강봉순			1	1	1	1	1	1	1	1	8	1996
274	440	박채규			1	1	1	1	1	1	0	0	6	"
275	441	석옥녀			1	1	1	1	1	0	0	0	5	"
276	442	김경진			1	1	1	1	0	0	0	0	4	"
277	443	윤춘자			1	1	1	0	0	0	0	0	3	"
278	444	김옥순C			1	1	1	1	1	1	1	1	8	"
279	445	박병례			1	1	1	1	1	1	1	1	8	"
280	446	박영희			1	1	1	1	0	0	0	0	4	"
281	447	신선자			1	1	1	1	1	1	1	1	8	"
282	448	염영순			1	1	1	1	1	1	1	1	8	"
283	449	이길원			1	1	1	1	1	1	1	1	8	"
284	450	황정희			1	1	1	1	1	1	1	1	8	"
285	451	이혜순			1	0	0	0	0	0	0	0	1	1997
286	452	이영원			1	1	0	0	0	0	0	0	2	"
287	453	고명수			1	1	1	1	1	1	1	1	7	"
288	454	김형선			1	1	1	1	1	1	1	1	7	"
289	455	박정희B			1	1	1	1	1	1	1	1	7	"
290	456	이경복			1	1	1	1	1	1	1	1	7	"
291	457	이성자			1	1	1	1	1	1	1	1	7	"
292	458	허인선			1	0	0	0	0	0	0	0	1	"
293	459	강희선			1	1	1	1	1	1	1	1	6	1998
294	460	김민수			1	1	1	1	1	1	1	1	6	"
295	461	김정단			1	1	1	1	1	1	1	1	6	"
296	462	신혜경			1	1	0	0	0	0	0	0	2	"
297	463	오현숙			1	1	1	1	1	1	1	1	6	"
298	464	이영순			1	1	1	1	1	1	1	1	6	"
299	465	이은규			1	1	1	1	1	1	1	1	6	"
300	466	이종애			1	1	1	1	1	1	1	1	6	"

※ 1. 'no.' 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no.	입회	이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재직 년도
301	467	정순자					1	1	1	1	0	0	4	1998
302	468	조성옥					1	1	1	1	1	1	6	"
303	469	최정자					1	1	1	1	0	0	4	"
304	470	허숙미					1	1	1	0	0	0	3	"
305	471	류효순						1	1	1	1	1	5	1999
306	472	이길순						1	1	1	0	0	3	"
307	473	전태성						1	1	1	1	1	5	"
308	474	김혜경						1	1	1	1	1	5	"
309	475	김혜자						1	1	1	1	1	5	"
310	476	남정숙						1	1	0	0	0	2	"
311	477	민동림						1	1	1	1	1	5	"
312	478	민희정						1	1	1	1	1	5	"
313	479	박미라						1	1	1	1	1	5	"
314	480	박선숙						1	1	1	1	1	5	"
315	481	박지순						1	1	0	0	0	2	"
316	482	오순원						1	1	1	1	1	5	"
317	483	오영숙						1	1	1	1	0	4	"
318	484	조복심						1	1	1	1	1	5	"
319	485	최현옥						1	1	1	1	1	5	"
320	486	홍인옥						1	1	1	1	1	5	"
321	487	황은영						1	1	1	1	1	5	"
322	488	김옥순							1	0	0	0	1	2000
323	489	조정희							1	1	1	1	4	"
324	490	차순희							1	1	1	1	4	"
325	491	권혜순							1	1	1	1	4	"
326	492	김인자							1	1	1	1	4	"
327	493	김해숙							1	1	1	1	4	"
328	494	김현수							1	1	1	1	4	"

※ 1. 'no.' 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no.	입회	이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재직 년도
329	495	문애자							1	1	1	1	4	2000
330	496	서정호							1	1	1	1	4	"
331	497	오 미							1	1	1	1	4	"
332	498	오주경							1	1	1	1	4	"
333	499	이기연							1	1	1	1	4	"
334	500	이윤신							1	1	1	1	4	"
335	501	이주영							1	1	1	1	4	"
336	502	이현주							1	1	1	1	4	"
337	503	전정옥							1	1	1	1	4	"
338	504	진주영							1	1	1	1	4	"
339	505	류금주								1	1	1	3	2001
340	506	조순명								1	1	1	3	"
341	507	서정자								1	1	1	3	"
342	508	김 선								1	1	1	3	"
343	509	김성숙								1	1	1	3	"
344	510	김연숙								1	1	1	3	"
345	511	김제녕								1	1	1	3	"
346	512	김호남								1	1	1	3	"
347	513	문경순								1	1	1	3	"
348	514	원명자								1	1	1	3	"
349	515	이경아								1	1	1	3	"
350	516	이생림								1	1	1	3	"
351	517	최문희								1	1	1	3	"
352	518	한행자								1	1	1	3	"
353	519	허정희								1	1	1	3	"
354	520	오정순									1	1	2	2002
355	521	이정금									1	1	2	"

※ 1. 'no.' 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no.	입회	이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재직 년도
356	522	고정미								1	1	2	2	2002
357	523	김경숙								1	1	2	2	"
358	524	김경연								1	1	2	2	"
359	525	김길성								1	1	2	2	"
360	526	김미정								1	1	2	2	"
361	527	김영자B								1	1	2	2	"
362	528	김완희								1	1	2	2	"
363	529	문서영								1	1	2	2	"
364	530	박인숙								1	1	2	2	"
365	531	원광자								1	1	2	2	"
366	532	유해옥								1	1	2	2	"
367	533	이덕주								1	1	2	2	"
368	534	장미리								1	1	2	2	"
369	535	장영자								1	1	2	2	"
370	536	정영숙								1	1	2	2	"
371	537	채강예								1	1	2	2	"
372	538	최소영								1	1	2	2	"
373	539	최영선								1	1	2	2	"
374	540	황영주								1	1	2	2	"
375	541	강춘구									1	1	1	2003
376	542	김광희									1	1	1	"
377	543	김명인									1	1	1	"
378	544	김옥실									1	1	1	"
379	545	김은하									1	1	1	"
380	546	김정아									1	1	1	"
381	547	김종순									1	1	1	"
382	548	김희동									1	1	1	"

※ 1. 'no.'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no.	입회	이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재직 연도
383	549	류경선										1	1	2003
384	550	문미숙										1	1	"
385	551	이경원										1	1	"
386	552	이길자										1	1	"
387	553	이수연										1	1	"
388	554	장현숙										1	1	"
389	555	전혜정										1	1	"
390	556	조영자B										1	1	"
391	557	추순자										1	1	"
계			247	254	251	241	234	243	247	256	272	282	2,527	-

※ 1. 'no.'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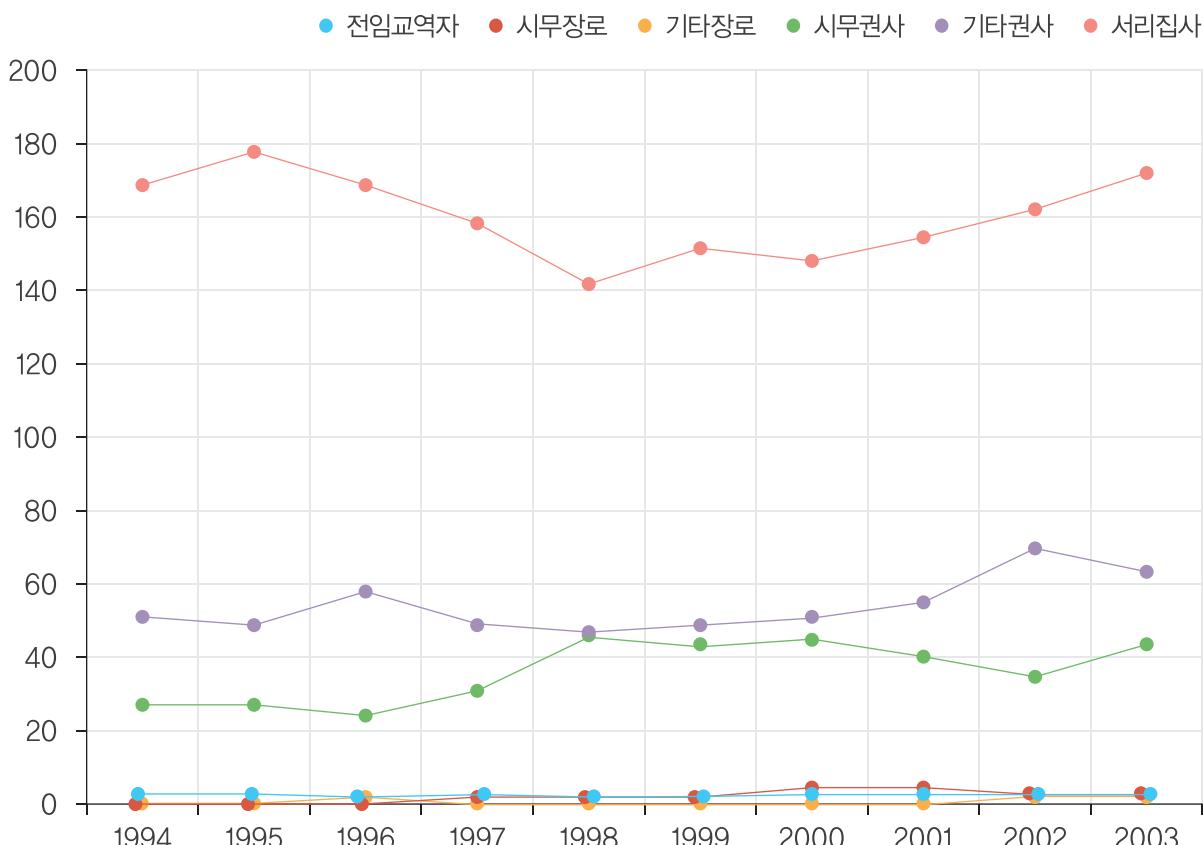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 여성제직 증감표 (1994–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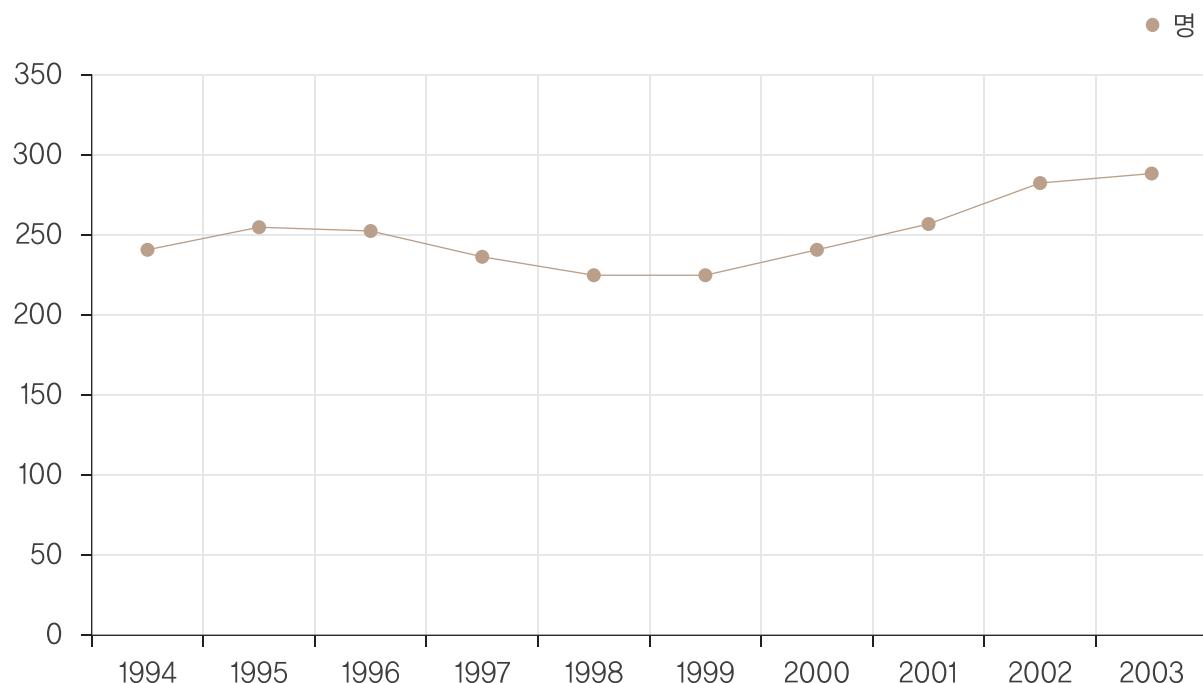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전임교역자	2	2	1	2	1	1	2	2	2	2	1.70
사무장로	-	-	-	1	1	1	3	3	2	2	1.86
기타장로	-	-	1	-	-	-	-	-	1	1	1.00
사무권사	26	26	23	31	45	42	44	40	36	42	35.50
기타권사	52	48	59	48	46	48	51	56	70	62	54.00
서리집사	167	178	167	159	141	151	147	155	161	173	159.90
전체	247	254	251	241	234	243	247	256	272	282	252.70

여성제직 직분별 추이 (1994–2003)



여성제직 추세 (1994–2003)



5.3 여성제직의 교회 기여도 2 (1990–1999)

¶ 제직회 각 국장 여전도 회원 분포도 (1990–1999)

no	生	각국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1	1	총무국	이상규	이상규	김공환	김공환	–	–	–	–	–	–	0
2	12	관재국	–	–	–	–	허윤	임중규	민대홍	민대홍	윤상구	윤상구	0
3	2	출판국	홍영표	홍영표	홍영표	홍영표	김충기	송재욱	조기현	조기현	조심	조심	0
4	3	재무국	이강룡	이강룡	이강룡	이강룡	이강룡	이강룡	이강룡	이강룡	이강룡	이강룡	0
5	4	교인 관리국	이정섭	이정섭	1박숙란	1박숙란	민석홍	민석홍	송재욱	송재욱	이본	이본	2
6	5	교육국	김충기	박희욱	송재욱	송재욱	민대홍	민대홍	이본	이본	이효종	이효종	0
7	6	선교국	민석홍	민석홍	이효종	이효종	홍영표	홍영표	이정섭	이정섭	조기현	조기현	0
8	13	사회 봉사국	–	–	–	–	–	–	–	허윤	이정섭	이정섭	0
9	7	봉사	1국	10 종선	1송영자	1송영자	10 정숙	10 정숙	10 종선	10 종선	1김희수	1김희수	1장은라
10	8	국	2국	–	–	허윤	허윤	1박숙란	1박숙란	1박숙란	1박숙란	–	–
11	9	감사	–	–	–	–	이정섭	이정섭	이정섭	허윤	허윤	오원표	오원표
12	10	특별 신앙 운동 본부	–	–	–	–	민석홍	이효종	이효종	이효종	이효종	송재욱	송재욱
13	11	예결산 위원회	–	–	–	–	–	–	–	–	–	–	0
계			1	1	2	2	2	2	2	2	1	1	16
1990–1999			여성국장/전체국장 = 16명/93명 (17.20%)										

비고	1. 총무국 산하 사무국, 관리부 2. 관재국 산하 재산관리부, 시설부 3. 1992년부터 봉사국 분리: 1국 친교, 미화; 2국 예배, 경조 4. 1993년 예결산 위원회 신설 5. 1994년부터 각 국 배열순서 재조정: 1선교국, 2교육국, 3교인 관리국, 4봉사국, 5재무국, 6관재국, 7출판국, 8감사, 9특별 신앙 운동 본부, 10예결산 위원회 6. 1997년부터 선교국 산하 해외 선교부, 농촌 선교부, 노래 선교단, 선교회 7. 1997년 사회 봉사국 신설: 선교국 산하 사회 봉사부가 사회 봉사국으로 독립 8. 1997년부터 특별 신앙 본부에 환경 살림터 및 안동 생활 협동조합 포함 9. 1998년부터 봉사국 다시 일원화—친교 봉사부, 미화부, 예배 준비부, 경조부
----	---

※ 1. 'no.' 는 해당 시기에서 각 기관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生' 은 해당 시기에서 각 기관이 생겨난 순서이다.

¶ 기타 기관 여전도 회원 분포도 (1990–1999)

no	生	각국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1	1	권찰회	1유연준	1유연준	1유연준	1유연준	10이종선	1송영자	1송영자	1강자영	1강자영	10정숙	10
2	2	성가대	이 본	이 본	김성렬	김성렬	이승수	이승수	1송숙연	1송숙연	윤상구	윤상구	2
3	3	문화 선교 위원회	—	—	—	—	—	—	—	유승재	1박숙란	1박숙란	2

1990–1999	권찰회장: 여성/전체 = 10명/10명 (100%) 성가대장: 여성/전체 = 2명/10명 (20%) 문화 선교 위원장: 여성/전체 = 2명/3명 (66.67%)
-----------	---

비고	1. 권찰회: 교인 관리국 소속 2. 문화 선교 위원회: 1997년 신설 3. 1994년 성가대 산하 한솔찬양대 대장 계명의 4. 1996년 당회 직속 기관 첫 여성 임원이자 첫 여성 성가 대장 송숙연 5. 1998년 당회 직속 기관 첫 위원회 위원장이자 첫 문화 선교 위원장 박숙란
----	--

※ 1. 'no.' 는 해당 시기에서 각 기관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生' 은 해당 시기에서 각 기관이 생겨난 순서이다.

¶ 평생교육원 여전도 회원 분포도 (1990–1999)

no	生	각국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1	1	늘푸른교실	1윤경남 1민기숙	1윤경남 1민기숙	1민기숙	1송영자	1송영자	1윤화자	1윤화자	10 정숙	10 정숙	1김경호	11
2	2	주부교실	10 주영	10 주영	10 주영	10 주영	1김희수	1김희수	1김희수	–	–	–	7
3	3	공부방	이정근	이정근	이정근	–	–	–	–	–	–	–	0
4	4	어린이방	–	–	1윤화자	1윤화자	–	–	–	남극남	남극남	–	2
계			2	2	3	3	2	2	2	1	1	1	20
1990–1999			평생교육원 담당: 여성 제직/전체 제직 = 20명/25명(80%)										
비고			1. 1993년부터 어린이방 명칭 어린이집으로 바뀜 2. 1990년부터 당회 지역선교 운영 위원회 산하 평생교육원 별도 표기 3. 1992년 당회 직속 기관 및 위원회 조직 이후 평생교육원을 당회 직속 기관으로 표시 4. 1999년부터 늘푸른교실 담당자를 학감으로 호칭하기 시작, 첫 학감 김경호										

※ 1. 'no.' 는 해당 시기에서 각 기관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生' 은 해당 시기에서 각 기관이 생겨난 순서이다.

¶ 환경 살림터 및 안동 생활 협동조합 (1997–2001)

연도	명단
1997	이윤희 정장자 이경복 염영순 박병례
1998	최묘희 이윤희 박정희 배필수
1999	배필수 민경숙 신부순 전정님 조복심
2000	장문자 김인자
2001	장문자 김휴숙 박병례

¶ 교회 활동 분야의 남녀 담임 비교 (1990–1999)

구분	제직회	권찰회	성가대	문화 선교 위원회	평생교육원
남	77명	0명	8명	1명	5명
여	16명	10명	2명	2명	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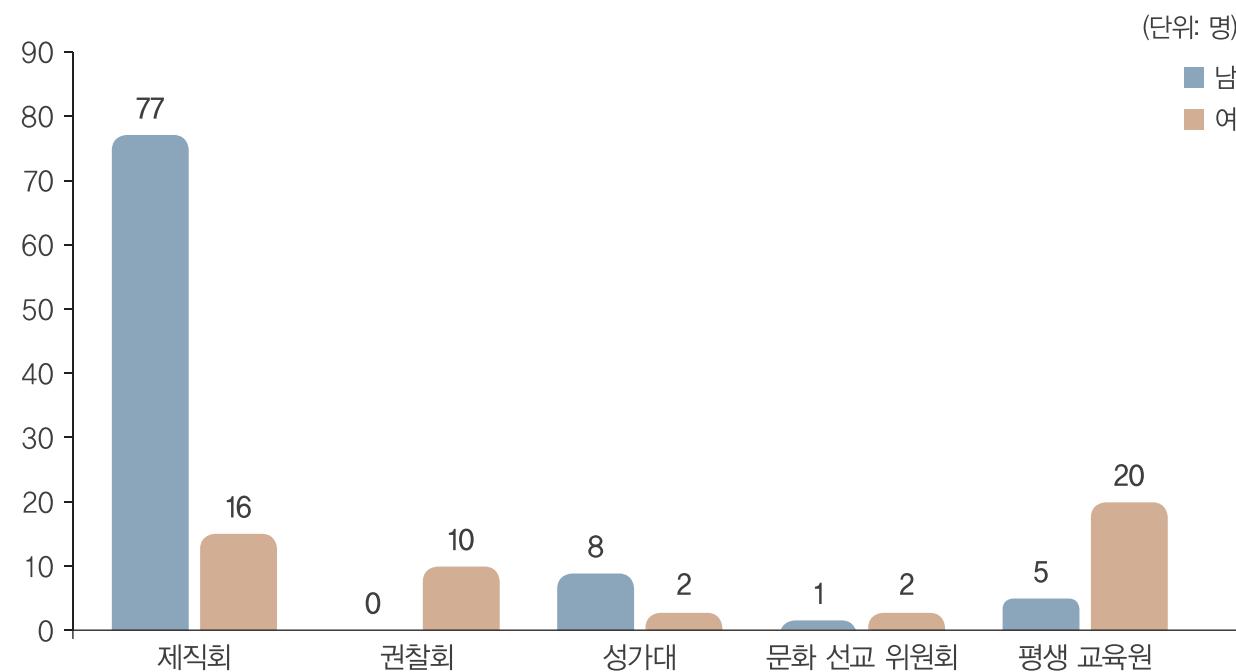
¶ 교회 활동 분야의 남녀 담임 비율 (1990–1999)

구분	제직회	권찰회	성가대	문화 선교 위원회	평생교육원
남	82.80%	0%	80%	33.33%	20%
여	17.20%	100%	20%	66.67%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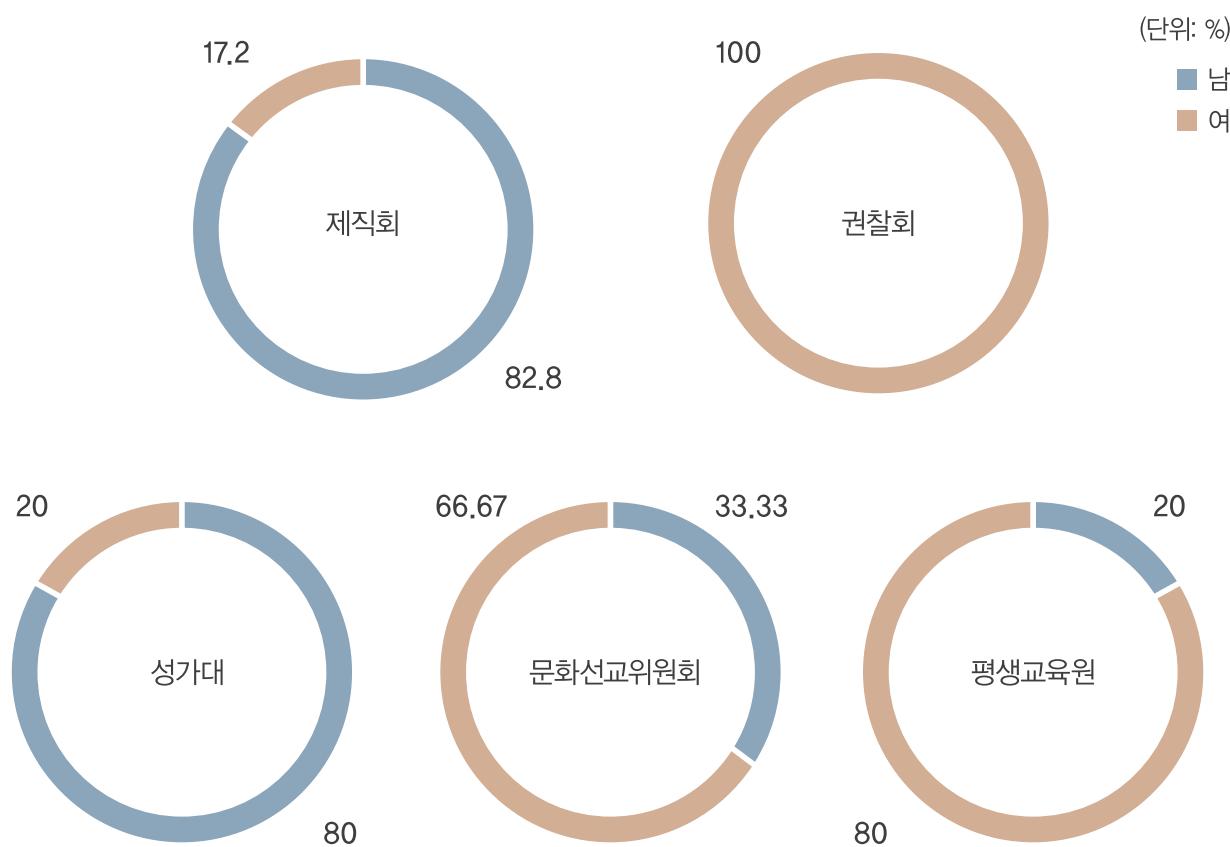
¶ 환경 살림터 및 안동 생활 협동조합의 남녀 활동 비교 (1997–2001)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남	0명	0명	0명	0명	0명
여	5명	4명	5명	2명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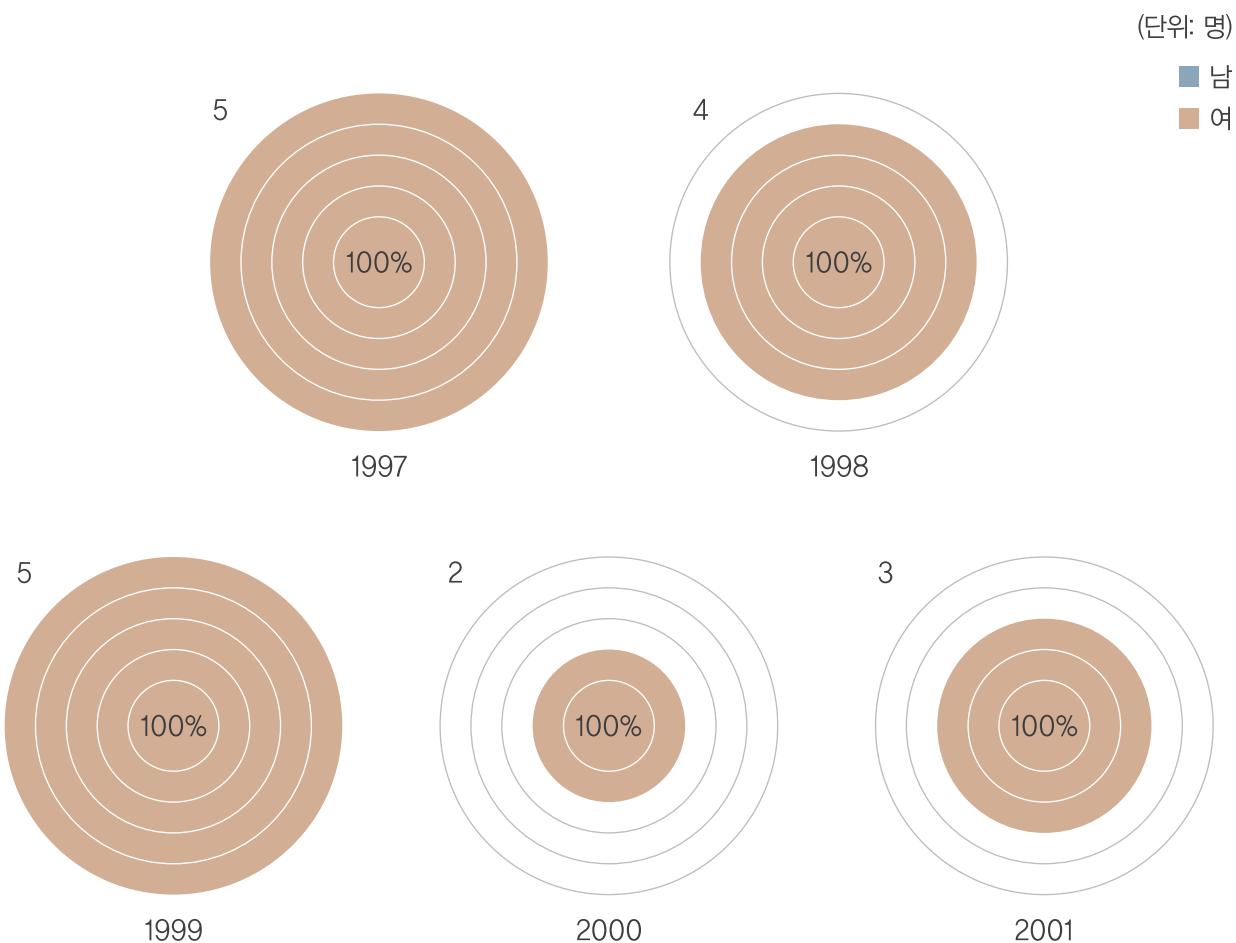
교회 활동 분야의 남녀 담임 비교 (1990–1999)



교회 활동 분야의 남녀 담임 비율 (1990–1999)



환경 살림터 및 안동 생활 협동조합의 남녀 활동 비율 (1997–2001)



5. 기독교문화를 꽂 피워 낸 안동의 여성들 (1991–2005)

5.4 창의와 열정의 봉사자 – 이정숙

안동교회 여전도회 인물열전⑩



창의와 열정의 봉사자 이정숙 장로

¶ 안동교회 여전도회 10대 인물 (안동교회 여전도회 100주년 화보발간위원회 선정)

도보와 사진으로
보는 안동교회 여전도회 100년사

no.	이름	여전도 회장 재임 연도	no.	이름	여전도 회장 재임 연도
1	이범숙	1913, 1917, 19470 전 1회 이상	6	윤경희	1958–1959, 1962–1963
2	홍숙자	1933, 19470 전 1회 이상	7	백정희	1964–1965
3	유진경	19470 전 1회 이상	8	공덕귀	1954–1955, 1969–1972
4	유각경	1935–1936, 19470 전 1회 이상	9	조화순	1973–1976, 1981–1982, 1984
5	오현주	1933, 19470 전 1회 이상	10	이정숙	1979–1980, 1990, 2004

P 이정숙의 약력

8	1 생몰연대(향년)	1936–2009(73세)	안동교회 내 직계 여제진(배우자)	모친	—	
	2 본 교회 출석기점	1967(31세)		시모	문보옥(김구봉)	
	3 신급	장로		딸	—	
	4 제직 등재번호	107번 / 720명		자부	김경연(김종명)	
	5 배우자	김충기 장로		손녀	—	
	6 여전도 회장 재임	1979–1980, 1990, 2004		손부	—	
	7 증언자(관계)	김종희 집사(딸)		증손녀	—	
	9 대표 업적	창의와 열정의 봉사자		증손부	—	
리더십의 특징	<p>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다</p> <p>② 남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모본을 보이다</p> <p>③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적 헌신으로 교회 살림을 돌아보다</p>					
	<p>① 성경 공부반과 신학원 등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배운 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힘쓰다</p> <p>② 연합 구역 예배를 발의하여 교우 사이의 친교에 큰 역할을 하다</p> <p>③ 여전도회 <역사 자료 편찬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초대 위원장으로서 여전도회 연보를 손닿는 대로 정리하여 『안동교회 90년사』의 부록에 자료로 남기다</p> <p>④ 경조 찬양대인 한소망찬양대를 발의하고 초대 대장으로 활동하다</p> <p>⑤ 중보 기도팀을 제안하고 초대 팀장으로 활동하다</p>					
친교	<p>① 안동교회 제2대 여성 장로이자 최초의 부부 장로라는 중직을 감당하다</p> <p>② 풍족하지 않은 형편에도 항상 분에 넘치는 연보를 하다</p> <p>③ 교회를 삶의 최우선에 두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다. 심지어 그의 마지막 8년의 간암투병 중에도 치료로 불가피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교회 일에 몰두하다</p> <p>④ 교회 김장, 주방 봉사, 교인들의 경조사 등 교회 구석구석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다</p> <p>⑤ 주일과 평일의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 집회와 모든 모임에 충성스럽게 참석하다</p>					
	<p>① 안동교회 제2대 여성 장로이자 최초의 부부 장로라는 중직을 감당하다</p> <p>② 풍족하지 않은 형편에도 항상 분에 넘치는 연보를 하다</p> <p>③ 교회를 삶의 최우선에 두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다. 심지어 그의 마지막 8년의 간암투병 중에도 치료로 불가피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교회 일에 몰두하다</p> <p>④ 교회 김장, 주방 봉사, 교인들의 경조사 등 교회 구석구석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다</p> <p>⑤ 주일과 평일의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 집회와 모든 모임에 충성스럽게 참석하다</p>					
교회봉사	<p>① 안동교회 제2대 여성 장로이자 최초의 부부 장로라는 중직을 감당하다</p> <p>② 풍족하지 않은 형편에도 항상 분에 넘치는 연보를 하다</p> <p>③ 교회를 삶의 최우선에 두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다. 심지어 그의 마지막 8년의 간암투병 중에도 치료로 불가피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교회 일에 몰두하다</p> <p>④ 교회 김장, 주방 봉사, 교인들의 경조사 등 교회 구석구석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다</p> <p>⑤ 주일과 평일의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 집회와 모든 모임에 충성스럽게 참석하다</p>					
	<p>① 안동교회 제2대 여성 장로이자 최초의 부부 장로라는 중직을 감당하다</p> <p>② 풍족하지 않은 형편에도 항상 분에 넘치는 연보를 하다</p> <p>③ 교회를 삶의 최우선에 두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다. 심지어 그의 마지막 8년의 간암투병 중에도 치료로 불가피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교회 일에 몰두하다</p> <p>④ 교회 김장, 주방 봉사, 교인들의 경조사 등 교회 구석구석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다</p> <p>⑤ 주일과 평일의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 집회와 모든 모임에 충성스럽게 참석하다</p>					

	선교	<p>① 부군 김충기 장로의 일본 근무시 시즈오카 지역에 한인 예배처를 개척하고 교인들을 섬기다</p> <p>② 늘푸른교실, 교도소 선교, 이슬비 전도대 등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회 봉사와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p>
	교회 연합사업	서울노회 여전도회 자선 음악회 등 본 교회에서 참여하는 모든 연합사업에 적극 참여하다

¶ 이정숙의 제직연표 (1967–2009)

■ 전도사 ■ 시무권사 ■ 서리집사 ■ 명예권사 ■ 은퇴권사
■ 피택권사 ■ 피택장로 ■ 장로 ■ 목사 ■ 은퇴장로

no.	입회	이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계	비고
89	107	이정숙	0	0	0	1	1	1	1	1	1	1	7	—
no.	입회	이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계	비고
57	107	이정숙	1	1	1	1	1	1	1	1	1	1	10	—
no.	입회	이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계	비고
38	107	이정숙	1	0	0	1	1	1	1	1	1	1	8	—
no.	입회	이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비고
31	107	이정숙	1	1	1	1	1	1	1	1	1	1	10	—
no.	입회	이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비고
18	107	이정숙	1	1	1	1	1	1	0	0	0	0	6	—

※ 1. 'no.'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연합 구역 예배 (1981. 4)

태릉 푸른동산에서 진행된 연합 구역 예배 참가자들. 연합 구역 예배는 이정숙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뒷줄: 윤은미 계명의 유옥근 김덕순 김희진 황재은

앞줄: 조정귀 목갑수 강자영 오군자 김영한



연합 구역 예배 (2002. 5. 10)



전교인 운동회에 참가한 이정숙 (1981)



교회 김장을 담그는 여전도 회원들 (1990)



아나바다 바자회에서 봉사하는 이정숙 당시 권사 (1991)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취지의 아나바다 선교 바자회에서 봉사하는 여전도 회원들. 사진의 왼쪽부터 류교영 이정숙 김윤수 목감수 김희진 김경남



이정숙이 초대 대장으로 봉사하던 한소망찬양대 (2005)

이정숙은 그의 투병 중 경조 찬양대인 한소망찬양대와 중보 기도팀을 책임 맡아 봉사했다. 이 두 팀의 공통점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중보의 사명이 강한 것이라고 하겠다. 병과 외롭게 싸우면서 그는 더욱 이러한 봉사의 필요성을 절감했는지도 모른다.



한소망찬양대의 안면도 수련회 (2005)

딸이 회상하는 이정숙 장로의 신앙

김 종희

저의 어머니는 2009년 5월 3일 주일, 안종혁 목사님이 집례하시는 임종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8년에 걸친 힘든 투병 시간과 병이 깊어져 매일, 매 순간이 고통과 고비였던 직전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그 날 어머님은 사랑하시던 가족과 교회 식구들의 천국배웅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임종하셨습니다.

장례식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어머니에 대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혼신을 다해 충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인일인 5월 5일 어린이날, 봄꽃이 만발하고 화창한 그 날,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장지에 오셔서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작별이 어떤 것인지 를 잘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QT를 통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23)는 말씀을 주셨고, 발인한 날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0)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말씀 모두 어머니가 그토록 교회를 사랑했던 이유를 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두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교회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각자는 성전이다. 우리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가기 위해 함께 모였고 이렇게 모인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 내 안의 성전을 잘 지어가려면 교회 공동체인 유형의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칭찬해 주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교회를 당신 삶의 최우선에 놓고, 늘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주일은 당연히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 계셨고, 수요예배, 구역예배, 금요 철야예배, 새벽기도회, 전도 집회 등 각종 예배, 평일의 여러 교회 행사, 늘푸른 교실, 교도소 방문, 이웃 봉사 등의 지역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 김장, 주방 봉사, 교인들의 경조사까지 이 모든 일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다니느라 늘 집에서는 파김치가 되어 있으셨던 직

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성장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어머니는 교회와 신앙생활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전력투구를 하는 모습이었고 그런 어머니에게 섭섭함을 느꼈던 적도 적잖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신학원 입학으로, 제 대학 입학식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고3 수험생 때에도, 어머니는 교회 일로 피곤하셔서, 제가 새벽반 학원 단과를 다녔으나 저를 잘 깨워 주거나 챙겨 주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본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일본 시즈오카 지역에 한인 예배처를 개척하고, 예배에 참석한 한인들에게 한국요리를 대접하고, 그들을 돌보느라 정작 우리 석구는 불편해서 화가 났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첫애를 출산하기 위해 친정에 와 있을 때도, 어머니는 여전히 교회 일로 바쁘셔서, 저는 진통이 오자 혼자 병원에 가서 입원하였고 어머니는 다행히도 출산 막바지에 오셨습니다.

이렇듯 어머니는 하나님 일과 자녀 일이 겹치면 하나님 일을 선택하셨고, 대신 하나님이나의 자녀를 더 완벽히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교회에 쏟으시고 남은 에너지는 저희 삼 남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다 소진하며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섭섭함을 느끼는 가운데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이 소홀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고 자녀가 자라서 수험생이 되어 뒷바라지를 해 보니 어머니 대해 이전부터 늘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어머니는 삶에서 하나님에 정말로 첫 번째였구나 하는 생각에 새삼 듭니다.

자녀가 우상이고 학벌이 우상인 이 시대에, 누가 어머니처럼 아이들 학업보다 교회 일에 더 몰입하고 마음을 쓰고, 누가 어머니처럼 내 자녀가 출산하는데 나중에 가 보겠는가?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가장 힘든 것이 자식, 학벌이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풍족하지 않은 저희 가정 형편으로는 항상 분에 넘치는 연보를 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또한 물질우상주의, 맘몬(돈)이 최고의 우상인 이 시대를 사는 제게는 늘 큰 교훈을 주는 실천신앙의 모습으로 나가오고 도전을 줍니다.

어머니는 2001년 간암이 발병하여 2009년에 돌아가셨으니 꽤 긴 시간 동안 투병생활을 하신 것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어쩔 수 없는 기간 외에는 여전히 교회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암환자이고 고령자이기에 교회 일을 내려놓는다 해도 어느 누구나 잘 이해할 텐데, 어머니에게는, 사는 기쁨이 그리고 투병하면서도 사는 이유가 바로 내 주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이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또한 건강이 우상인 이 시대에, 어머니가 좀 더 당신의 몸을 위하셨으면 더 오래 살지

않으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자식으로서 드는 맘이지만 어머니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삶은 아예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몸부터, 내 것부터, 내 자식부터 챙겨놓고, 교회를 챙기는 시대 풍조에서는 보기 힘든 적응의 모습을 저는 어머니를 통해 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런 당신의 헌신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하셨기보다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교회 식구들을 넘치도록 사랑하셨기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어머니의 자녀 삼남매는 이런 신앙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출 수 없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머니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 저희들 속에 다이아몬드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를 잘 간직하고 닦아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저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머님의 신앙을 따라 저희의 소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합니다.

% 아래의 글은 어머님 장례예배 때 유경재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어머님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유경재 목사님께서 신양인 어머님의 모습을 잘 말씀해 주셨기에 제가 이 설교문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도 함께 실으면 어떨까 싶어 보냅니다.

하느님 영광 앞에 흠 없이 서다

유경재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이정숙 장로님이 오랜 투병 끝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의 떠나심은 안동교회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참으로 부지런하게 가정과 교회를 섬기셨던 분, 가정이나 교회의 일에 그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이 없을 정도로 고인은 매사에 적극적이었으며, 열정적인 신앙으로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믿음 가운데로 이끌며, 다른 성도들에게 뜨거운 신앙의 열기를 불어넣었던 장로님이 가신 빈자리는 참으로 크다 하겠습니다.

장로님의 삶의 자리는 결코 순탄하다고 할 수 없는 굴곡이 많은 자리였습니다. 6남매의 장남이신 김충기 장로님의 가정에 들어오시면서 시작된 그의 삶은 시동생과 시누이들을 모두 공부시키고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였고,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는 더욱 열정적인 신앙의 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정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교회의 일에도 적극적이어서 여전도회를 비롯하여 교회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런 신앙의 열정이 때로는 지나칠 것 같은 위험도 없지 않았으나 고인은 스스로의 신앙을 다잡아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안동교회 두 번째 여성장로가 되어 그의 생애 마지막 부분을 현신적인 봉사로 채웠습니다.

1981년 여름에 베델성서연구반 숙제로 “나의 신앙의 꿈”이란 주제를 주어 글을 쓰게 하였는데, 그 때 고인이 작성하신 글이 보관되어 있어 잠시 소개를 드립니다.

- 1)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 따라 이 나라와 민족에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고 현신하도록 계속 힘쓴다.
- 2) 우리 하느님의 성전인 안동교회가 날로 부흥되며 성장해가고, 이 교회에 요구되는 선교적 사명을 다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나는 조용히 한 모퉁이를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한다.
- 3) 나의 가정생활 자체가 선교적인 생활이 되도록 힘쓴다.
- 4) 현재 하느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며 열심히 배우고 신앙의 훈련을 쌓아서 장래 어느 곳에선가 나를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위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그들 속에 심어주며 현신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고인의 꿈은 한 가정주부의 평범한 것이 아닌 하느님의 나라를 품은 큰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간 삶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오랜 투병생활로 인해 많이 약해지시기도 하였고, 때로는 자신 앞에 어른거리는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끝까지 하느님의 거룩하신 손에 자신을 맡기시므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장로님의 죽음 앞에서 하느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송이 몇 군데 있습니다. 로마서 16장과 에베소 3장 그리고 유다서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왜 우리가 하

느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능하신 하느님이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며 거침이 없게 하셔서 흄이 없이 하느님 앞에 서게 하시기에 그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의뢰할 때 하느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완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롬 16:25)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느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굳게 고정시킨다’, ‘힘 있게 한다’, ‘굳세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삶,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 폭풍우가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이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연약하기 짹이 없습니다. 꺼져 가는 등불과 같고 상한 갈대와 같아서 쉽게 꺼지고 쉽게 부러지고 맙니다. 아무리 내가 굳센 의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꺼이고 무너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전쟁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가 하면 때로는 불의의 유혹이 우리를 지조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이 우리의 삶을 온통 흔들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우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역경들을 극복하면서 견고한 삶을 이룩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고인의 삶을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아마도 복음이 아니었다면 그의 삶은 너무도 쉽게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일찍 허락하셔서 그 능력으로 자신을 굳게 세우고 온갖 고초와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룩된 복음은 모든 죽음의 권세와 악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우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고인으로 하여금 끝까지 투쟁하게 하였고 결코 넘어지거나 후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고인의 주검 앞에서 그를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우신 하느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3:20-21)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느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나 기도하지 않고 그저 생각만하고 있는 것이라도, 아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그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기에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평소에도 늘 하느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넘쳤다고 고백하시곤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기가 구한 것보다 언제나 넘치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교회의 중직인 장로가 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느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큰 복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가정에 언제나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뜻하는 '더 넘치는 은혜'란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더 넘치는 은혜를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산정한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땅에 국한되지만 하느님은 그것을 넘어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복 받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만 하느님은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장로님도 사실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가정도 돌보고 교회 봉사도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의 판문을 통과하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이르러 보니 폭풍처럼 밀려오는 영생의 행복으로 삼위일체 하느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의 은총이 소낙비처럼 쏟아져 내림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도 삼위일체 하느님께 영광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흄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느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유다 1:24-25)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흄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하느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느님의 영광 앞에 흄 없이 서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인간을 구원하심과 온전케 하심에 빙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하시고자 계획하신 일에 실수나 실패함이 있을 수 없기에 그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의 모든 계획에 조금도 잘못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도 하느님은 우리를 마침내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느님 영광 앞에 흄 없는 자로 서게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결치 못하고 진실치 못하며 사랑을 따라 행치 못하지만 하느님은 마침내 그런 모든 흄을 다 없애시고 성결하고 신실하며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병중에서 자기가 열심히 믿노라고 하였지만 역시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만족시켜 드릴만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늘 부족할 뿐입니다. 특히 죽음 앞에 이르러서는 대체로 굳건하였다고 생각하였던 믿음도 속절없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께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야 얼마나 더 보잘 것 없는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흄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흄도 없는 완전한 존재로 부활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병중에 자기의 약함 때문에 많이 고심하셨지만 뜻밖에 그 거룩하신 하느님

의 영광의 보좌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한 점의 흠도 없이 변화된 모습으로 선 자신을 보면서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영광스러워 기쁨의 찬송을 한 없이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이런 영생의 은총을 예비하신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정숙 장로님의 놀라운 믿음과 자기희생의 헌신은 가족들과 안동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와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떠나가심은 유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며, 안동교회 성도들에게는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이런 멋진 여성, 열정적인 신앙인을 허락하셔서 그와 함께 하였던 시간들이 큰 즐거움과 보람이 되게 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를 주님께로 보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의 시신은 관에 모셔졌지만 그는 이미 새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으로 빛나는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이제 유족들은 그의 가슴으로 너무 크게 빈자리에 하느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굳건하게 서서 슬픔을 이기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손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위로와 평강이 유족들과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정숙 장로의 장례식에서 선포한 유경재 목사의 설교문 ④

유경재 원로목사는 이정숙 장로의 장례식에서 그의 놀라운 믿음과 자기 희생의 헌신이 그의 가족과 안동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기쁨의 원천이었다고 회상했다.

5.5 1990년대의 여전도회



1991년 4월 14일 집사 권사 임직식

3열: 홍유남 김남인 김수천 박상순 문창아 김효수 오정숙 이정숙 김덕순 이주영 유옥근 송영자 이종선

2열: 김영한 이순학 안권선 이규숙 김남금 이순정 장은라 민기숙 김경남 강자영 이삼득 이신영 조화순 박숙년 임원례

1열: 유정자 변상방 김희진 이임생 정화성 유경재 김옥순 김태진 김희수 김정희 조춘희 서영희 (시무권사 임직자)



1996년 4월 28일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3열: 민대홍 이 본 흥영표 이효종 김충기 안광덕

2열: 민석홍 송재욱 이정섭 송호윤 이정근 노세희 허 윤 조기현 김민홍 주한광 윤상구 이승수 이강률 김장세

1열: 곽순영 장문자 송숙연 오군자 홍세진 유경재 박숙란 송숙자 신경희 강신자 김경호 이인선 문영임 (장로, 집사, 권사)



1997년 12월 14일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의 권사 임직자들

뒷줄: 이순례 박경자 한계명 최야란 김해자 계명의 목갑수 고옥희

앞줄: 나영애 윤복희 김옥순 유경재 홍승희 계명신 장세순



1999년 12월 5일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뒷줄: 조정귀 이춘우 박정음 유양재 김동형 오도광 양재철

앞줄: 유준자 유혜순 윤화자 추영일 유경재 이정숙 이주영 이경자 (장로, 집사, 권사)



정책 당회에 참석한 여성 장로들 (1999)

1999년 10월 대한성서공회 로스기념관에서 열린 정책 당회에 동년 12월 임직 예정인 제2대 이정숙, 제3대 이주영 여성 장로가 참석했다. (임직 예정자는 밑줄 표시)

3열: 변창배 고현영 이정섭 송재욱 민석홍

2열: 윤상구 홍영표 추영일 이효종 조기현 박숙란

1열: 류금주 김옥순 김장세 유경재 이주영 이정숙



김경남 전도사의 환갑 축하 (1990)

송영자 권사의 사회로 김경남 전도사의 환갑을 축하하는 한빛 여전도회



김경남 전도사댁 방문 (1992)

충북 엄정면 가춘리에 소재한 김경남 전도사댁을 방문하고 기념 촬영



한빛 여전도회 수련회에서 강의하는 이경재 신부 (1990. 9. 14)

1990년 한빛 여전도회는 불광동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가지면서 안양에 있는 나환자촌 나자로마을의 원장 이경재 신부를 강사로 모셔 강의를 들었다. 이것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그동안의 금기를 깨고 한 자리에 모인 획기적인 일로 한 일간신문 「한국일보」 1990년 9월 16 일자)에 보도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한빛 여전도회는 10월 25일 나자로마을을 방문하여 온풍기 1대를 기증하고 다과를 준비해 마을의 가정을 방문하고 대접했다.



수련회에 참가한 한빛 여전도회 회원들 (1990. 9. 14)



나자로마을 가정 방문 때 선물 받은 봇통 (1990. 10. 25)

한빛 여전도회는 〈사랑의 수의〉 제작으로 담지한 감사비를 모아 나자로마을에 온풍기 1대를 기증했다.



한빛·한샘 한사랑 3지회 회장단 모임 (1992. 3. 17)

뒷줄: 김희진 김경남 김정희 유준자 류교영 최명애 김정수 최야란

앞줄: 계명의 목갑수 유경재 조춘희 김화자 김덕순



한솔찬양대의 전신인

저녁 성가대의 친목회 (1992. 3. 29)

4열: 양재철 안우현 송재욱

3열: 김영한 박혜숙 ○○○ ○○○ 류현일

유정자 계명의

2열: 고옥희 한인수 한계명 남극남 황정렬

송영자 배복석 조기현 이상규 김용원

1열: 강춘자 김경남 목갑수 전덕길 강자영



난지도 밀알어린이집 방문 (1992)

한샘 여전도회는 1992년부터 난지도가 개발되기 전인 1994년까지 이곳의 밀알어린이집을 후원했다. 뒷줄 왼쪽 두 번째가 김덕순 원장



교우 가정 심방 (1993. 5. 16)

곽운희 권사 댁을 심방하다. 심방대원 오원표 유연준 김수천 정우 김수원
강자영 김희수 등의 얼굴이 보인다.



고사리수양관에서 열린
전교인수련회 믿음반 교우들 (1993)



한샘 여전도회의 실행위원회들 (1993. 6. 13)

실행위원회의를 마친 후 엔지니어클럽에서 기념 촬영.

왼쪽부터 계명의 이정숙 박경자 김옥분 오군자 이순례 민기숙 장은라 은성순 김희수 엄영재 유준자 류난영
김형주 지윤혜

한샘 여전도회에서 회원 생일선물로 만든
공중전화 카드 (1999)





안동어린이방 봉사자 윤화자 명예원장 (1991)

우리 교회는 윤화자를 명예원장으로 하여 1991년 9월 2일 교육관에 탁아소인 안동어린이방(1993년부터 안동어린이집으로 개칭)을 열었다. 사진 속의 여전도 회원은 윤화자와 양은선인데 모두 우리 교회 여전도회 초대 회장인 이범숙의 직계 가족이다. 즉 윤화자는 이범숙의 손녀이며 양은선은 이범숙의 손부이자 공덕귀의 자부이다. 이들은 역시 이범숙의 손녀인 윤경남, 손부인 민기숙과 더불어 우리 교회 지역사회 선교에 크게 이바지했다. 즉 네 사람 모두 늘푸른교실을 여러 번 책임 맡아 봉사했다. 우선 윤경남은 늘푸른교실이 당회 산하 평생교육원 소속으로 명기되면서 맡은 최초의 담당자(실질적으로는 학감, 학감이란 명칭 자체는 1999년 이후에 쓰임)로서 1990–1991년의 두 해 동안 봉사했다. 민기숙은 이범숙의 딸 윤예경의 자부인데 1991–1992년까지 두 해를 봉사했다.

윤경남의 동생 윤화자 역시 1995–1996년 이태 동안 늘푸른교실을 지도했고 양은선은 늘푸른교실의 마지막 학감으로 2012–2013년의 2년 동안 봉직했다. 늘푸른교실의 지도자가 명기되고 난 이후 14년 동안 7년을 이범숙의 후손들이 늘푸른교실을 담당하여 지도했음은 특기할 만하다.

사진 좌에서 세 번째가 양은선 당시 집사, 우측 첫 번째가 윤화자 안동어린이방 명예원장, 그 옆이 김점순 원장.



안동어린이방의 여전도 회원들 (1991)

왼쪽부터 김점순 원장, 석정녀 당시 집사, 박경혜 당시 집사, 윤화자 명예원장, ○○○. 박경혜 역시 이범숙의 손부이자 이기화의 자부이며, 윤화자는 이기화의 딸이다.



주부교실 종강 예배 후 (1991. 11. 21)



여성 안수 실현 감사 예배 (1995. 8. 17)



우리 교회 제1대 여성 부목사 이혜순의 성찬식 집례 (1997. 8. 16)

1997년 한샘 여전도회 하기 수련회에서 이혜순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하고 있다



'97 세계 기도일 예배에서 울동하는 한사랑 여전도 회원들 (1997)



이슬비 전도 편지 가족 초청 예배에서 '돌아온 탕자'를 공연한 여전도 회원들 (1999)

뒷줄: 유혜순 박정희 허성희 김미영 홍정희 신선자 김휴숙 박미라

앞줄: ○○○ ○○○ 유경재 김정숙 박노향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 여전도회 기념 예배 (1999. 10. 31)



교회 창립 9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다과회의 봉사자들 (1999. 3. 7)

3열: 고옥희 김옥분 김경웅 엄영재 김희진 박경자 홍정희 이윤희 최서섭

2열: 조춘희 문유심 김정수 장은라 유준자

1열: 최야란 이춘우 오군자 김혜자 김정희 김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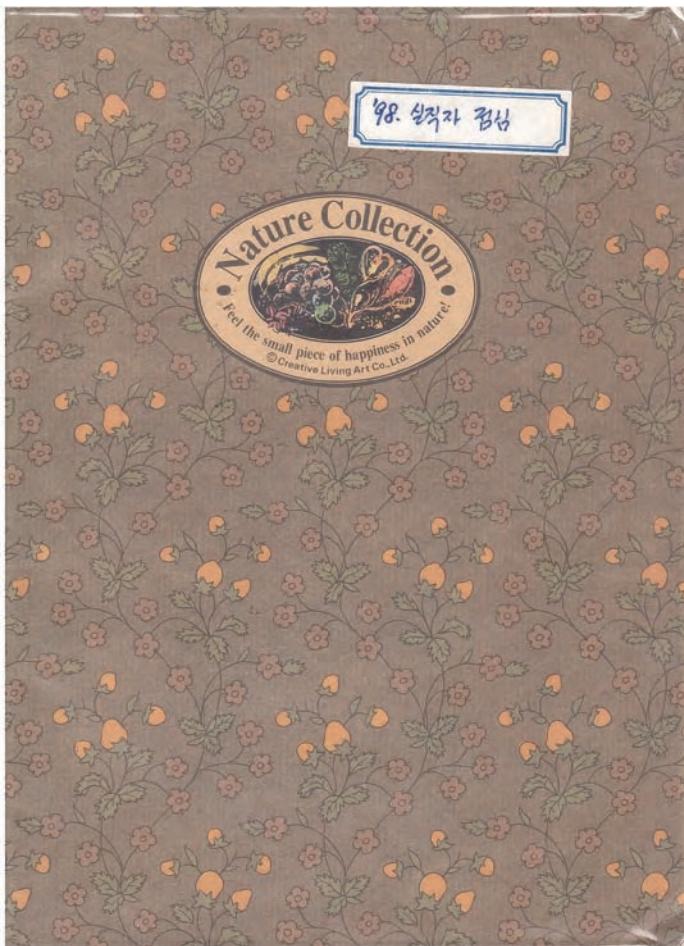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 여전도회 작품 전시회 테이프 커팅 (1999. 10. 31)

김혜자 민석홍 변창배 유경재 김옥순 계명의

P '98 실직자 점심 봉사, 그 7주간의 기록

1997년 말 우리 사회에 국제 금융 위기의 환난이 휘몰아쳤다. 집집마다 실직자가 속출했고 가정이 위태로워졌다. ‘고개 숙인 아버지’의 모습이 사회 도처에서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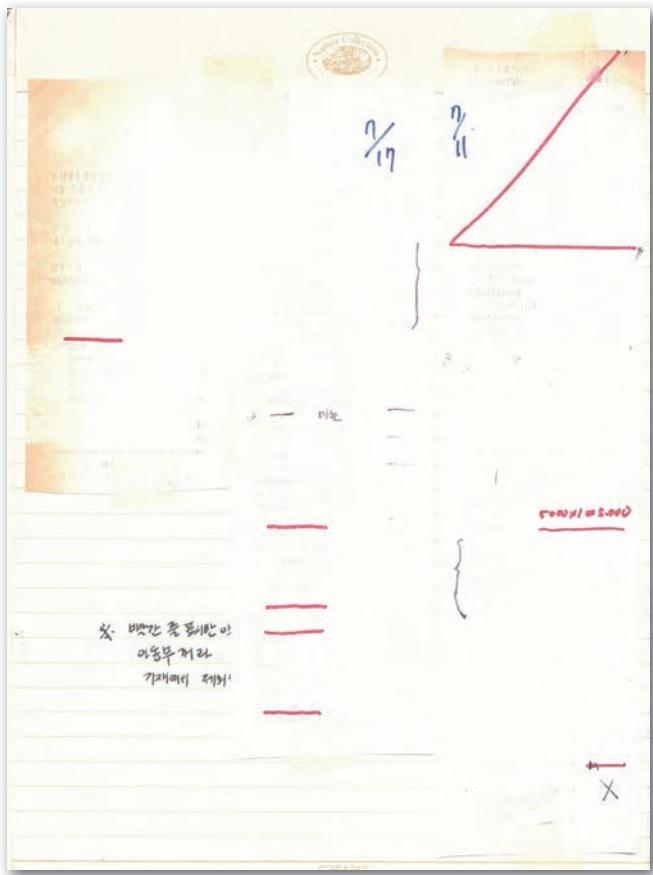
그때 우리 여전도회는 용산역 광장으로 실직자들을 위한 점심 봉사를 나갔다. 1998년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500~600명의 점심을 준비하여 대접했다. 말없이 따뜻하게 실직자들을 위로했던 그 7주간의 기록을 여기 몇몇 발췌하여 옮겨본다.



'98 실직자 점심 봉사 일지

이 일지는 당시 이 점심 봉사의 책임을 맡았던 계명의가 기록하여 보관해왔다. 17년 전의 자료들이라 영수증의 잉크가 흐릿해져 잘 보이지 않지만 있는 그대로 스캔하여 실었다. 이 일지의 구성은 각 봉사일마다 왼쪽 페이지에 영수증을 오른쪽 페이지에 구입목록을 적어간 것이다. 그리고 일지의 뒤쪽에는 매주 월요일 진행된 점심 봉사의 그날 책임자 및 진행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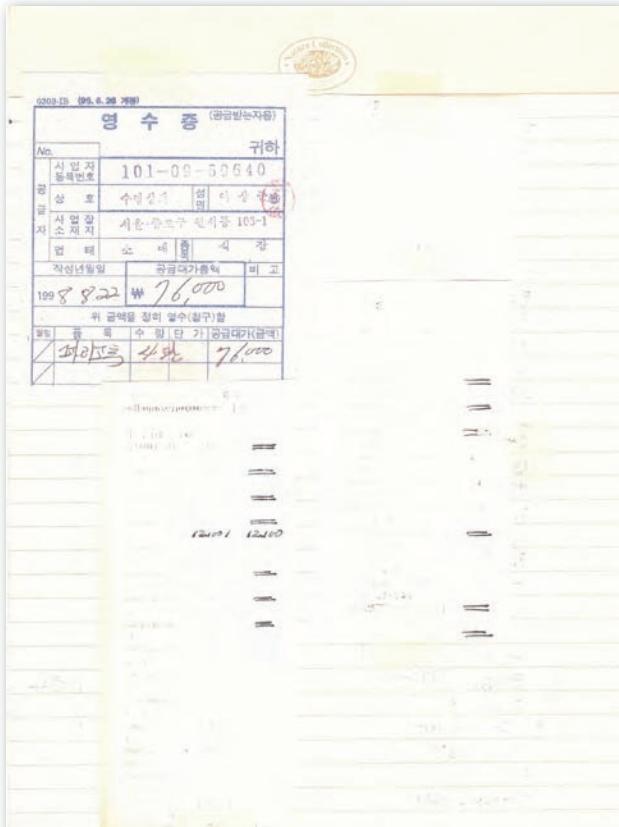
영수증과 구입 내역의 경우는 첫날과 마지막 날의 것만을 발췌했고 일지는 모두 옮겼다.



첫날 식재료 구입 영수증 (1998. 7. 13)

날짜	제품	수량	금액	날짜
7/11	양동비자 누워드	614.522		
7/11	농협 314로 카드에서 shopping			
	식용유 1.8L 2병		7.600	
	浣腸제 24g x 9ea		1.800	
	고구마 3kg		9.500	
	시리얼 2 x 9ea		1.900	
	Sugar 3kg		4.100	
	버터기 치즈		3.500	
	참기름 450g		4.400	
	무선 gao 474		2.300	
	참기름 500ml		5.000	
	깐마늘 880g		11.100	농협 3,500
	Coffee 5ea		1.600	
	Coffee 153g x 2봉		14.400	
	우유기수 100g		1.700	
	우유 노른 500g		1.250	
	마린 500g		2.160	
	영화 151g		6.600	
	미트 10kg		21.300	574.152
				농협 249.500
7/12	통배추 15단 x 2개 = 30봉		33.000	484.152
	부추 5단		5.000	496.152
	파리고추 4봉		36.000	440.152
	대파 5단		5.000	435.152
	오이 1점		11.000	424.152
	도우 49봉 x 1.700ea		83.300	340.152
	고추기수 10봉		45.000	295.852
	깻잎 1봉		5.000	290.852
	미트 추가		8.000	282.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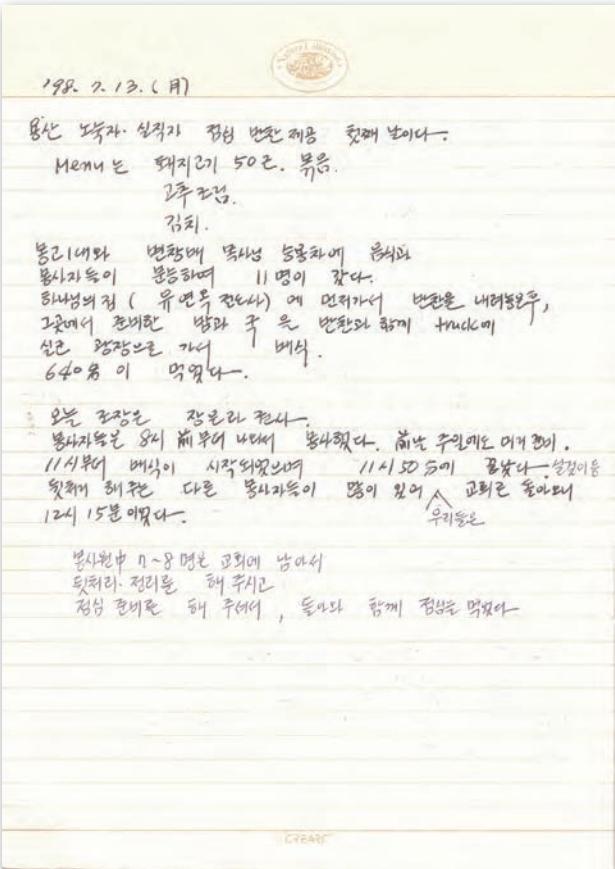
첫날 식재료 구입 목록 (1998. 7. 13)



마지막 날 식재료 구입 영수증 (1998. 8.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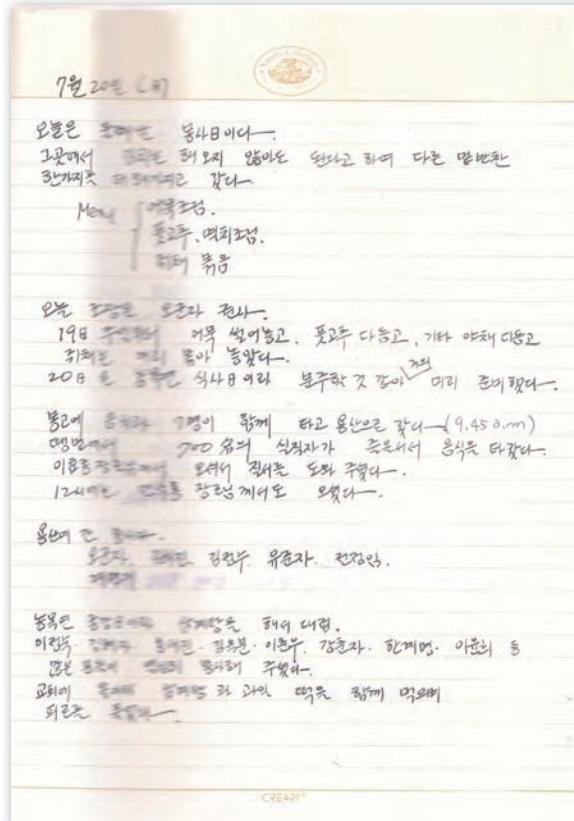
	수입	자초	잔액	비고.
간장	3.500, 옛 6.440	9.940	773.109	
	옛 6.440	6.440		
대파 8개×1100		8800	789.489	
황제 450g		4.400		
멸치액젓 110g		2.420		
까나리액젓 110g		2.640		
양배추 15봉×1.000		15.000		
고구마 151g (31)		8.300		
포드 4kg		11.500		
와지간기 500g × 1600		80.000		
배추 1kg		1.890		
삼겹살		6.114		
한우등심로스 } 등심 토론포르 } 등심 히나트돈 } 등등 1.290+1.455+1.982		8.640 6.701 4.341 4.727 1.000		
"꽃"				
파리고추 42g		76.000		
온갖류 (불사자)		20.000		
잼비 (봉42g)(50g)		15.000	522.023	
"화내님의집" 캔디션류 (Stick Candy)		8.300		
고추기름		10.000		화내님의집
세리다이너		3.500		
CG 810g × 40.000		320.000		
알东路바나나 200g		20.000	160.236	화내님의집
Candy 옛 젤리 (60g)		50.000	110.236	

마지막 날 식재료 구입 목록 (1998. 8.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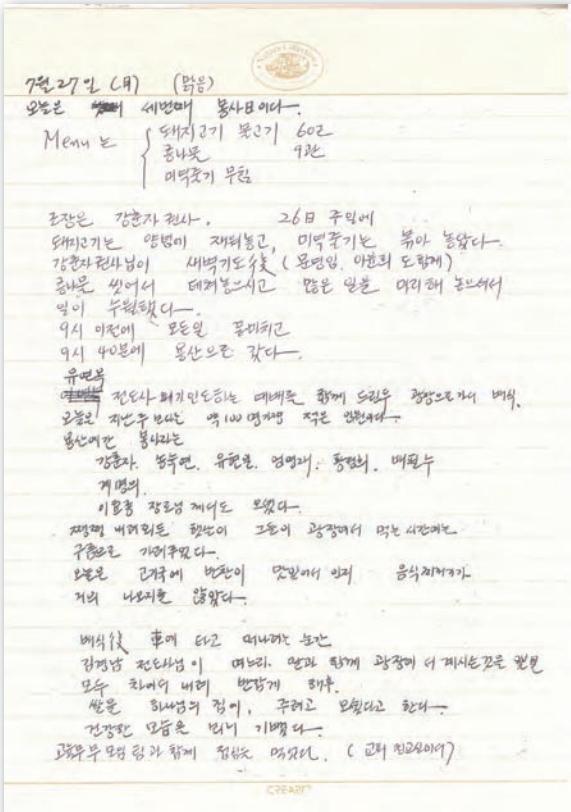
첫날 일지 (1998. 7. 13)

조장: 장은라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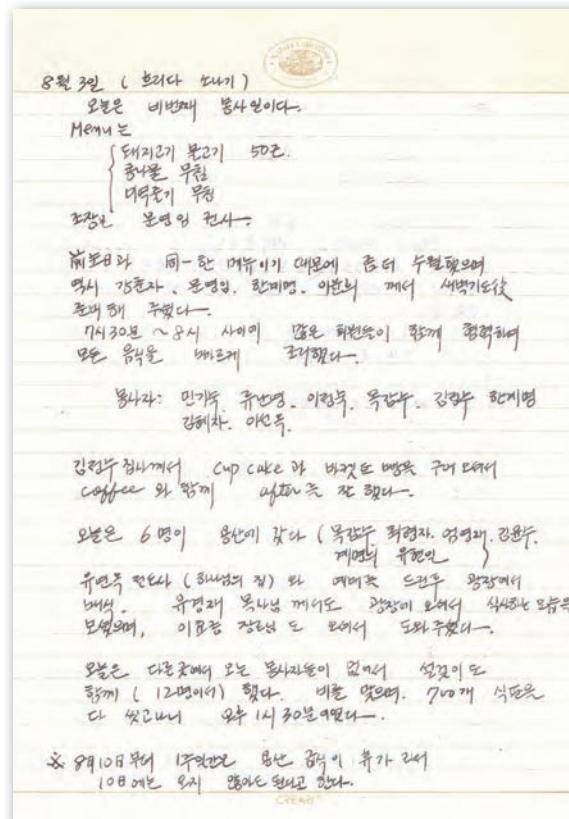
둘째 날 일지 (1998. 7. 20)

조장: 오군자 권사



셋째 날 일지 (1998. 7. 27)

조장: 강춘자 권사



넷째 날 일지 (1998. 8. 3)

조장: 무영임 권사



8月 10日

오늘은 다섯번째 봉사일이다.

Memories

육계장 카페트 오이김치, 밥. (400명)
場所는 독립문공원

(∵ 용산광장은 이번주에는 휴가라 봄)

조장은 이윤희 집사.

8월 5일부터 경기북부·서울 지역에 내린 폭우로 농경지가
침수되어 야채값이 급등.

할 수 없이 1부 예배後 조정리, 장운리, 풍어진 깨어 경동市場에서
카페트와 오이, 파 등을 사 가지고 와서 김치를 담그겠지.으며.
육계장 쪽 양지마리도 미리 끓여놓았다.

쌀 40kg을 가지고 밥을 하려니 주방이 있는 솔에 두번씩
해야 했다.

10일 새벽부터 시작해니 10시 30분경에 끝났다.

다른 준비하여 빙끌 하려니 또 폭우가 내리기 시작.

그래도 준비해 놓았고, 약속했기에 독립문 공원으로 빙끌.

봉고 대화 변창배 목사님 능봉차에 분赃했다.

독립문 공원에 예정보다 사람이 적어 (260명가량)

음식이 남아서 노원구청에 의뢰하여 누재민들이

있는 곳에 갖다 주기로 했다.

결국 공릉동 노재 "공릉교회"에서 기숙하는 미래민
들에게 (약 250명) 저녁까지로 가져다 주었다.

교회 봉고와 생명의 능봉차로 갖는데 그 교회에 있는
봉사자들이 배식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음식만 주고
돌아왔다.

교회에서 오후 5시에 출발. 6시에 도착했는지

그 시간에 내린 폭우의 량은 아마도 몇백 ml는 될 것 같았다.

도착한 운전을 못 할 정도로 앞 window가 모이질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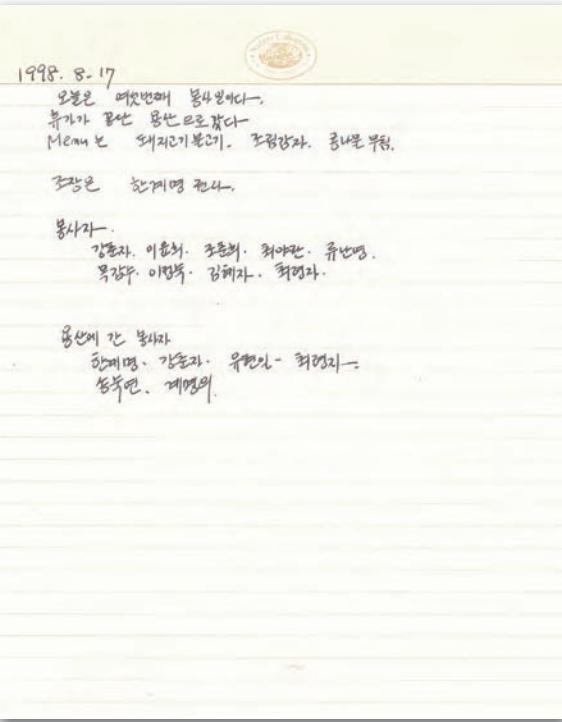
누재민을 위하여 쌀 20kg으로 밥을 더 해서 공급했는데

목간주 권사님이 쌀을 기증해 주었다.

CRE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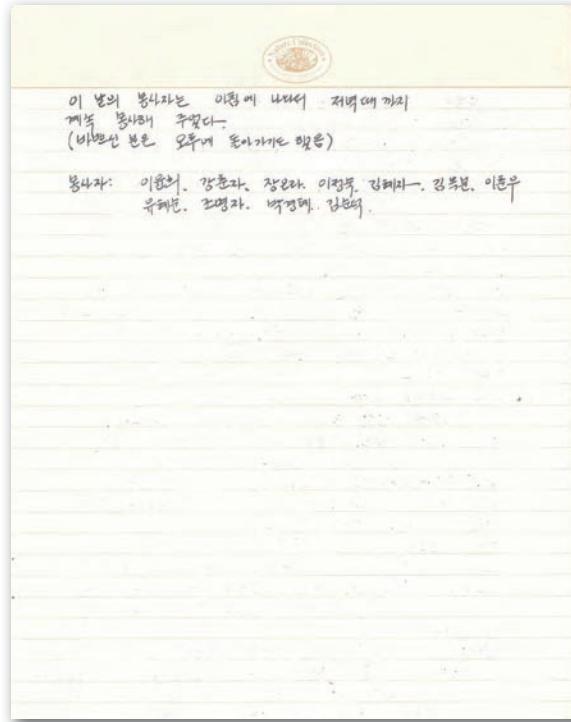
다섯째 날 일지 (1998. 8. 10)

조장: 이윤희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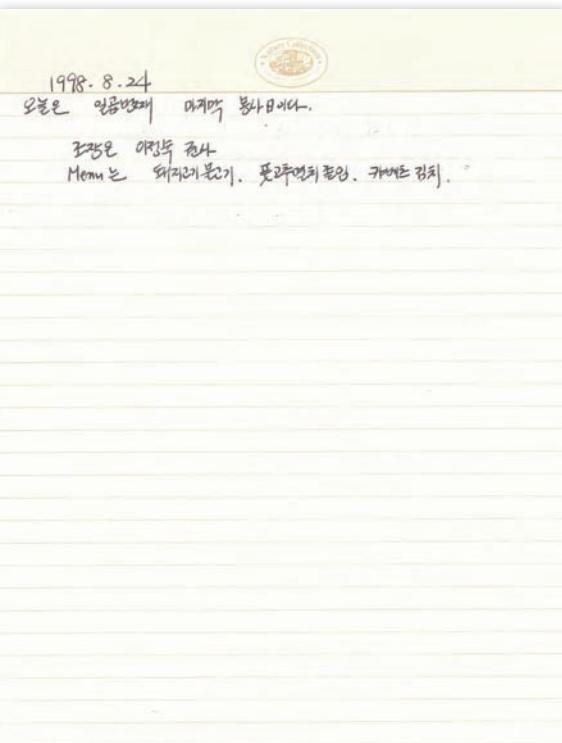


여섯째 날 일지 1 (1998. 8. 17)

조장: 한계명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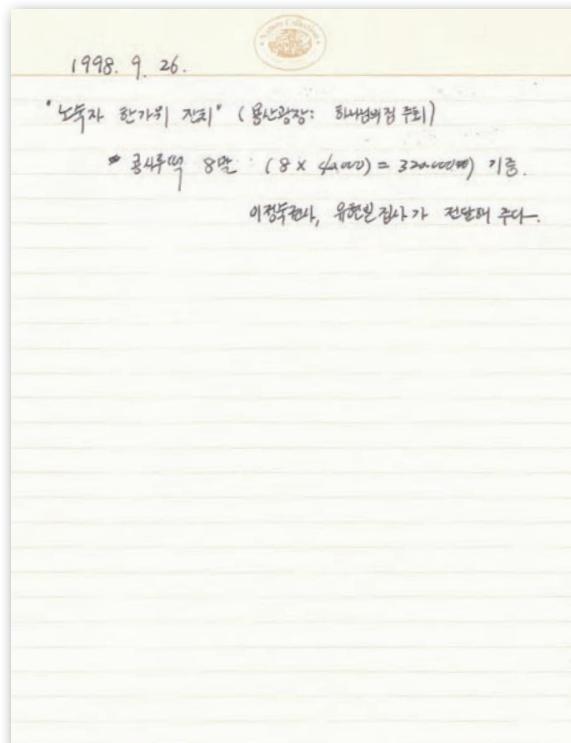


여섯째 날 일지 2 (1998. 8. 17)



일곱째 날 일지 (1998. 8. 24)

조장: 이정숙 권사



마지막 봉사 (1998. 9. 26)

한가위 선물전달: 이정숙 권사, 유현경 집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1년 전 노숙자 점심제공을 위하여 땀흘리며 500~600명분의 반찬을 해 가지고 용산 역 광장에서 열심히 배식 하던 일이 몹시도 오래 전 일인 것 같아 느껴집니다. 그래도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모았기에 그 많은 일들을 거뜬히 해 낼 수 있었습니다.

점심 후 맛있게 먹었던 전 고구마의 맛이 지금도 기억나시죠?

각 부서에서는 부 활성화를 위하여 일이 끝난 후 시원한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친목을 도모하셨지요. 수고해 주신 조장님들 모시고 식사를 한 번 하려고 했지만 모두의 시간을 절충하기가 어려워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1년이 지나 갔군요.

생각한 끝에 격려금으로 '가장 큰 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을 사서 드리기로 책임 맡은 제가 결정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큰 수고에 작은 것으로 보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항상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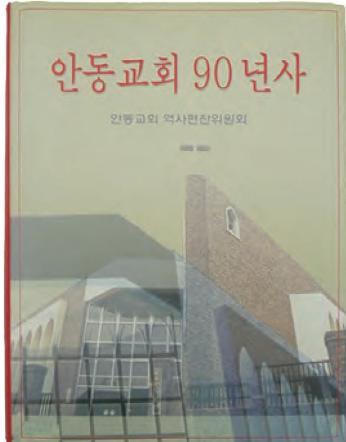
1999년 8월 1일

'98년도 한샘 회장 계명의 올림

계명의
올림

후기 (1999. 8. 1)

5.6 새 천 년을 맞은 여전도회



2001년 발간된『안동교회 90년사』



2002년 4월 28일 집사 권사 임직식의 임직자와 당회원

3열: 안일현 유왕재 조영식 서우석 김경엽 황금석 인치명 백종관

2열: 윤순미 최명애 한인수 은성순 김정수 김영애 류난영 김옥분 지운혜 윤상구

1열: 추영일 흥영표 이정섭 이효종 유경재 류금주 이정숙 이주영 조기현 변창배 (집사, 권사)



정책당회에 참석한 여성당회원들 (2002)

3열: 추영일 이강룡 흥영표

2열: 윤상구 이 본 이정섭 조기현

1열: 이효종 류금주김장세 유경재 이주영 이정숙



2003년 5월 24일 장로 임직식의 임직자 부부들

뒷줄: 염영순 최문수 김경호 오정섭 최명자 전덕길 (뒷줄은 신임장로의 배우자)

앞줄: 박정음 김영석 임중규 유경재 장문자 강명준 김용원 (신임장로는 밑줄 표시)



서울노회 공로목사 추대식에서 연주하는 한솔찬양대 (2004. 12. 7)



한솔찬양대의 성지순례 (2012. 5)

그리스 고린도의 아폴로신전 앞에서

뒷줄: 최명자 박정희B 권종옥

앞줄: 한계명 권태순 계명의 한인수 황재금 김우숙 정정자 조명자



유경재 원로목사 추대 기념 음악회에서 연주한 찬양대원들 (2004. 5)



원로목사 추대 기념 음악회를 마치고 (2004. 5)



유경재 원로목사 추대 당시 당회원들
(2004. 5. 23)



유경재 원로목사 추대 당시 권사들 (2004. 5. 23)



유경재 원로목사 추대 당시 남집사들
(2004. 5. 23)

유경재 원로목사 추대 당시 여집사들
(2004. 5. 23)



유목사님께 드리는 글

하나님의 恩惠로 新系의 5개에 한빛기도회로 모여 우리 유목사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가슴 풍물한 감회를 자아냅니다
28年前 安洞敎會가 어수선한 시련의 끈에 빠져 있을 때 주일 설교에 청빙되신 것도 이 5월에 였습니다. 28個 星霜은 紅顏을 白髮로 젊은 意味를 남겼습니다. 영성개발 회년 공동체, 치년설교 統一運動--- 항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 뜻에 영적 코드를 맞추며 교계의 신선한 지표를 세우시어 하나님 구원계획의 한 부분을 감당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이루며時代를 앞서간 先知者 함께 더불어 사랑과 화해의 역사를 이루며 先覺者로서의 협신으로서 우리 삶의 삶을 새롭게 하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활동 영의 窓, 이기도 하셨고, 어디로 向한 것인지도 모를 우리 빠른 걸음을 生命의 좁은 길로 하늘의 신령한 기업 영성을 向해 나가도록 里程表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95周年을 맞이한 안동교회를 통하여 주님 베푸신 은총에 感謝 드리며 여호와께서 定하신 걸음으로 치열한 先覺者로서의 협신적인 목회 사역에 심심한 감사와 큰 박수를 드립니다.

언제나 떼 뜻한 미소로 안동교우들을 포근히 감싸주신 목사님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원로목사님으로 추대되심은 우리 모두의 큰 기쁨입니다.

온퇴하신 후에도 두 内外분 마르지 않는 푸른 산처럼 (아호 白泉처럼) 충만하신 건강으로 가운데 구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 들어내며 多福하시기를 우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5. 18

한빛 강신자 드림

한빛 여전도회가 유경재 목사께 드리는
환송의 글 (2004)



2005년 6월 12일 박병욱 제11대 목사 위임식의 당회원들

뒷줄: 최창해 이성철 박정음 조기현 김영석 이 본 송재욱 흥영표 이정섭 임중규 구희숙

윤상구 추영일 김용원 강명준 박시형 류금주

앞줄: 민대홍 김충기 아주영 민경임 박병욱 유경재 목갑수 이효종 박숙란 이정숙 장문자



2005년 6월 12일 박병욱 제11대 목사 위임식의 제직들



신년 첫 주 성만찬 예식 후
성찬기를 정리하는 여전도 회원들
(2002. 1)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을 수상하는 유연준 권사 (2002. 5. 6)

유연준 권사는 우리 교회 추모의 벽을 조형한 김기연 집사와 기원오페라단 단장으로 활동하는 김기원 성도의 모친이다. 유 권사는 십수 년 동안 성찬식의 떡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다.



인사동 화랑에서 열린 유연준 권사 개인전

뒷줄: 계명의 김영자 A 최묘희 박숙란 한인수

앞줄: 정정자 강춘자 황재금 황정희 유연준



제24회 자선 음악회에서 공연하는 여전도 회원들 (2002)

서울노회 여전도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새문안교회에서 열렸다



자선음악회 공연을
본 교회 오후 예배에서 연주하는
여전도회 (2002)



주일학교 교사와 함께 한 부활절 계란만들기 강습회 (2000)



첫 교구장 회의를 마치고 대한 결핵 협회를 견학하다 (2002. 1. 3)

¶ 목갑수 사모와의 송별여행

목갑수 권사는 유경재 제10대 목사의 부인으로 우리 교회에서 28년 동안 담임목사 사모로 헌신했다. 아래 사진들은 2004년 5월 유 목사의 퇴임과 원로목사 추대와 함께 교회에서 물러서게 된 목갑수 사모와의 송별을 아쉬워한 여전도회가 그를 모시고 송별 여행을 떠났을 때 찍은 사진들이다. 여행 후 앨범으로 만들어 목 사모께 드린 것인데 그 중 몇장을 싣는다.

그리고 여전도회원들의 송별의 말을 적어 꾸며드린 앨범의 사진도 실어 목 사모와 우리 여전도 회와의 오랜 추억을 기념한다.



제주도 여행 기념

목갑수 사모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그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렵니다.

2003년 5월 29, 30, 31일 여행자 일동 올림

앨범 서사



송별여행 1 (2003. 5. 30)

뒷줄: 장은라 오군자 김방자 김정희 조정순 홍세진 신선자

앞줄: 안부강 박숙란 목갑수



송별여행 2 (2003. 5. 30)

뒷줄: 정정자 강춘자 송숙자

앞줄: 목갑수 이정숙



송별여행 3 (2003. 5.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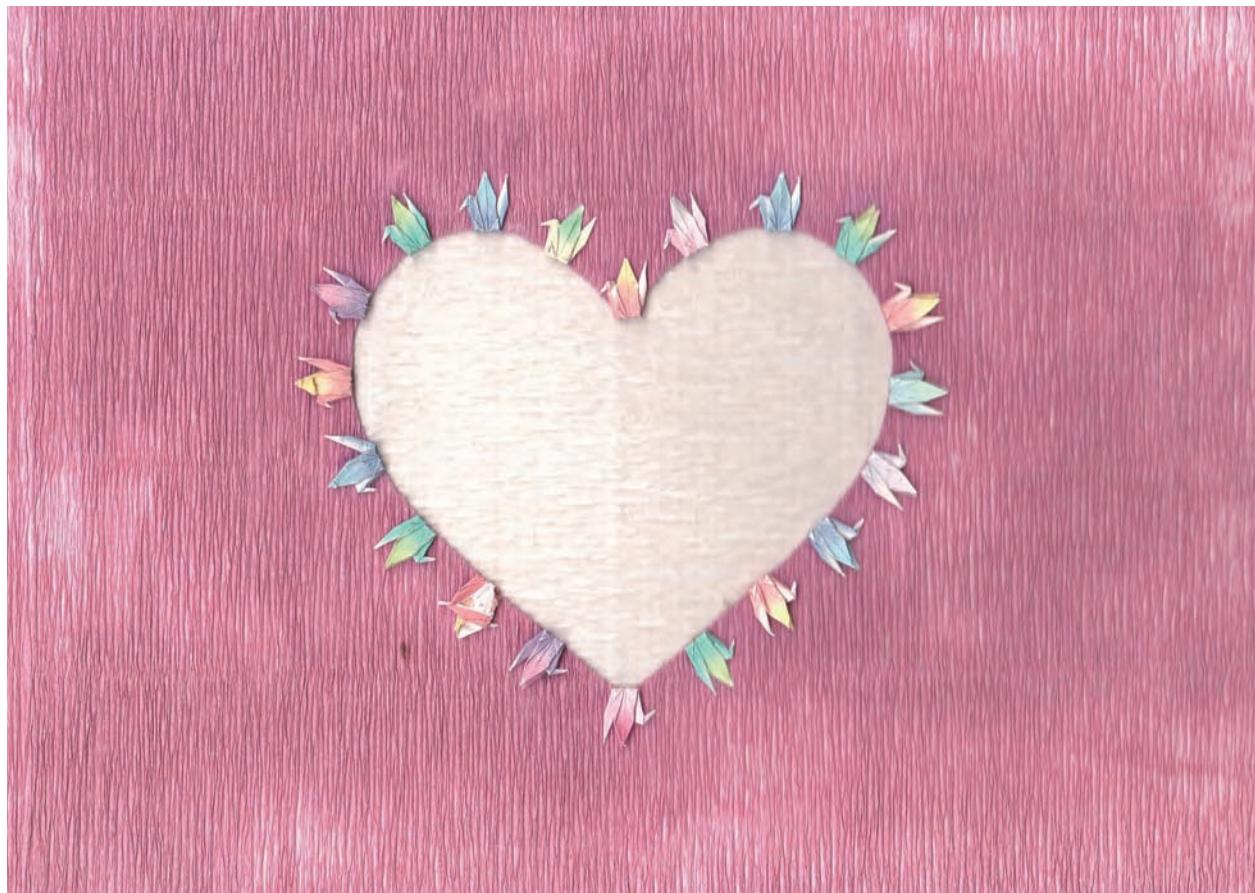
왼쪽부터 조정순 김정수 목갑수 조춘희 문창아 김종순 유연준 정정자 김혜자

제주도 여행 함께 한 이들의 명단	
반	이 름
穩(목)반	1 문창아, 조춘희 2 이정숙, 계명의 3 장은라, 김방자 4 김희진, 김정수 5 정정자, 김종순
敍(갑)반	6 박숙관, 목갑수 7 김장세, 안부강 8 이춘우, 장문자 9 문영님, 강춘자 10 김희수, 김혜자
粹(수)반	11변상방, 송숙자 12 유연준, 김정희 3 홍세진, 조정순 14 오군자, 신선자 15 고옥희, 최명자 총30명

穩(목)화목할목: 공경하다, 기뻐하다, 화목하다.
敍(갑)모을갑: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다.
粹(수)순수할수: 순수하고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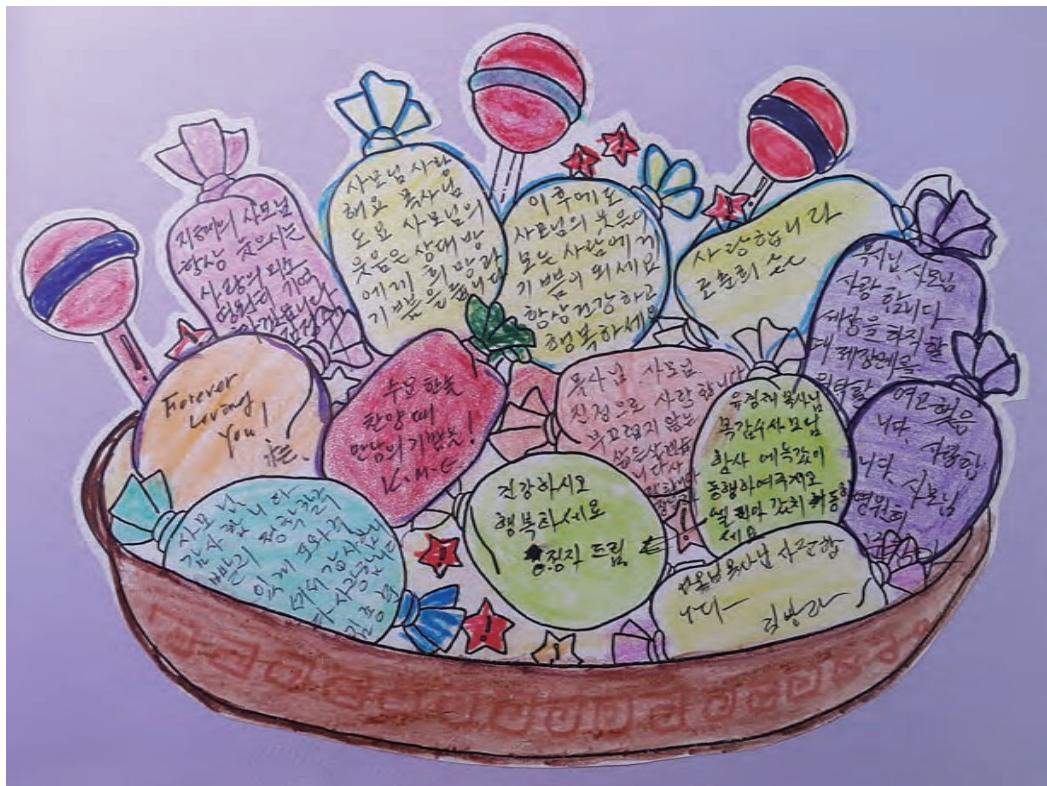
영원한 우리사모님 !
사모님의 큰사랑과 큰 믿음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온 교우들을 향한 따뜻한 보살피심과 사랑하시는 마음 늘 감동 받습니다.
사모님께서 보살피 주신 사랑과 은혜 길이 간직 하겠습니다.
사모님 금번 미국교환 목회,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즐거운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디 두 내외분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기원합니다.
이 경 속 음림 ♥♥♥

앨범 후기



목감수 사모께 드리는 편지앨범 표지

5. 기독교문화를 꽂 피워 낸 안동의 여성들 (1991-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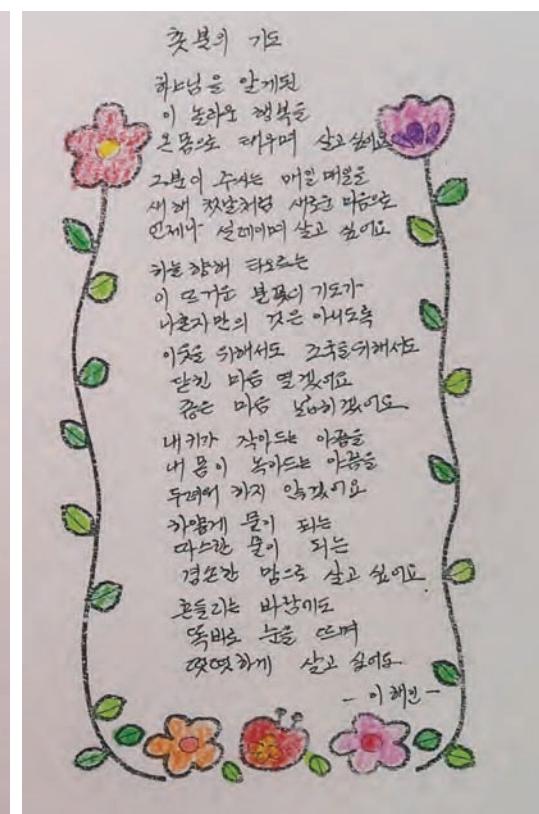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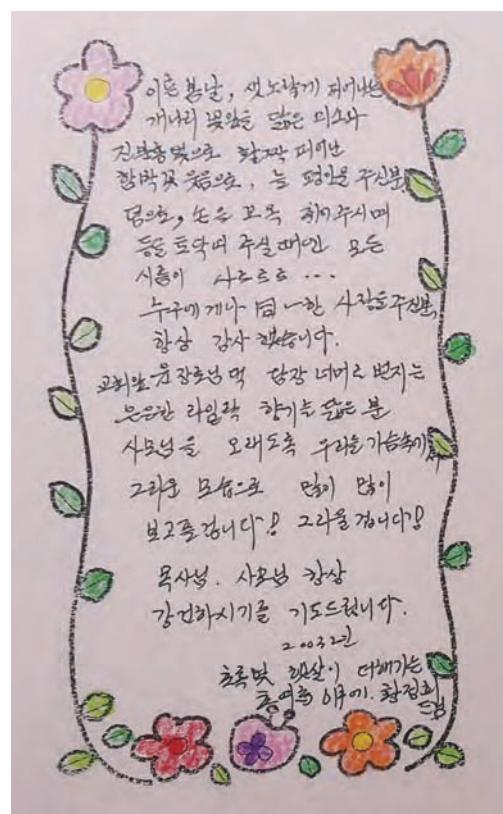
목갑수 사모께 드리는 편지 1



목갑수 사모께 드리는 편지 2



목감수 사모께 드리는 편지 3



목감수 사모께 드리는 편지 4

5.7 네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는 양반교회, 효도하는 여전도회

우리 교회 여전도회의 고귀한 전통 중 하나는 부모 공경이다. 어버이주일을 축하하는 양식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해갔다.

우선 1970년대의 어버이주일에는 주로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 베다니 양로원을 방문하여 봉사했다. 다음으로 1980년대의 어버이주일은 한샘 여전도회가 주관하여 진행했는데, 교회 친교실에서 온 교우가 함께 모여 경로 잔치를 벌이고 축하했다. 또한 창립 75주년이나 80주년과 같이 특별한 때에는 교회 인근 지역의 노인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다. 한편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어버이주일 축하 행사에는 어르신들만 참석하였고 풍성한 오찬으로 대접하고 찬양을 함께 나누고 선물을 드렸으며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의 재롱 잔치와 축하 공연을 가졌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어버이주일의 축하 행사는 따로 갖지 않고 기념 선물과 축하 인사로 대신하고 있으며 신년 첫 주에는 교회의 어르신들을 앞으로 모시고 세배의 예로 인사드리는 순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초대 여성 장로인 박숙란은 어버이주일의 봉사에 특별한 관심으로 헌신했다. 그리고 1998년에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당회 직속 기관인 문화 선교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기독교의 효도 문화 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해갔다. 1997년 우리 교회가 효의 덕을 기리자는 취지로 효행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심사위원 명단의 처음에 그가 기록되었다. 즉 1997년 효행상 심사위원은 박숙란 송재욱 오원표 이삼형 이종선 김영한 김윤수였다. 한편 2008년 4월 13일자 주보에 기록된 효행상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0년 이상 등록 교우
 2. 부모 별세
 3. 10년 이상 봉양
 4. 교회 봉사 성실
 5. 이웃간 호평
 6. 현 당회원 제외
- 2014년 5월 현재 안동교회에서는 총 13회의 효행상 시상식이 있었다.

 **안동교회 역대 효행상 수상자 명단 (1997-2015)**

일자	회	수상자
1997. 5. 11	제1회 효행상	조윤자 집사(고 오현주 권사의 자부)
1998. 5. 10	제2회 효행상	김용근 집사·이춘우 집사
1999. 5. 9	제3회 효행상	조심 집사·조영자 집사
2000. 5. 14	제4회 효행상	박종한 집사·신선자 집사
2001. 5. 13	제5회 효행상	박영석 집사·오정순 권사
2002. 5. 12	제6회 효행상	백낙환 집사·박숙란 장로
2003. 5. 11	제7회 효행상	오원표 집사·김효수 권사
2004. 5. 9	제8회 효행상	신현표 씨·최명애 권사
2005. 5. 8	제9회 효행상	민기숙 권사
2006. 5. 14	제10회 효행상	이용우 집사·김정희 권사
2007. 5. 13	제11회 효행상	이본 원로장로·송숙연 권사
2008. 5. 11	제12회 효행상	민만홍 집사·이전 집사
2014. 5. 11	제13회 효행상	정병수 집사·민경숙 권사
2015. 5. 10	제14회 효행상	김윤성 집사·문경순 권사



어버이주일 축하 잔치를 진행하는 박숙란 당시 권사 (1992. 5. 10)



담임목사의 축복 기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한빛 여전도회

왼쪽부터 ○○○ ○○○ 조계숙 이순학 조정석 ○○○ ○○○ 김남금 이삼득 김영한 ○○○



축하 잔치



축하 선물을 증정하는 봉사자들

좌로부터 박숙란 김덕순 김경남



제3회 효행상 수상기념 (1999년 어버이주일)

수상자: 조심 집사 · 조영자 집사



제5회 효행상 수상기념 (2001년 어버이주일)

수상자: 박영석 집사 · 오정순 권사



제6회 효행상 수상식 (2002년 어버이주일)

수상자: 백낙환 집사 · 박숙란 장로



제7회 효행상 수상식 (2003년 어버이주일)

수상자: 오원표 집사 · 김효수 권사



제8회 효행상 수상기념 (2004년 어버이주일)

수상자: 신현표 씨 · 최명애 권사



제9회 효행상 수상기념 (2005년 어버이주일)

수상자: 민기숙 권사



제11회 효행상 수상기념 (2007년 어버이주일)

수상자: 이본 원로장로 · 송숙연 권사



제12회 효행상 수상식 (2008년 어버이주일)

수상자: 민만홍 집사 · 이전 집사



제13회 효행상 수상식 (2014년 어버이주일)

수상자: 정병수 집사 · 민경숙 권사



제14회 효행상 수상식 (2015년 어버이주일)

수상자: 김윤성 집사 · 문경순 권사